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

高 永 根**

I. 머리말

現代語의 冠形詞形에는 ‘-ㄴ, -는, -던, -근’의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中世語에서도 統辭上의 기능 如何에 따라 모습을 약간 달리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현대어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두 시기의 言語를 대상으로 할 때 看取되는 冠形詞形의 標識은 ‘-ㄴ’과 ‘-근’이다。¹⁾ 이 두 標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최근 들어 관형사형에 의해 이끌어지는 構文에 대한 관심이 높게 일고 있지마는 이 물음을 제기한 일은, 필자의 算聞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관형사형에 의해 이끌어지는 構文이 關係節과 補文節의 기능을 띠었다는 점과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時制體系는 叙述構文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確認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²⁾ 중세어에 대해서는 ‘ㄴ, 근’이 冠形詞的 用法 이외 名詞的 用法을 지시한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浮刻되었고³⁾ 이에 대응되는 叙述構

* 本稿는 1981年度 產學協同財團의 研究費로 이루어졌다。본고의 概要是 第64回 문법연구회 月例發表會(1982. 1. 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 人文大 教授

- 1) 현대어의 관형사형의 분석은 高永根(1975), 중세어의 그것은 高永根(1981: 10-24) 참조。
- 2)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 업적은 Yang (1972), 南基心(1976), 李弼永(1981) 참조。
- 3) 대표적으로 梁柱東(1942:267-8; 1947:75-6), 허옹(1969:115) 참조。관형사형의 명사적 용법에 대한 統辭論的 설명은 허옹(1975:644, 652-4)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시도되었다고 생각한다。

文도 歷史的으로는 名詞的 用法을 떤 ‘ㄴ, 근’에서 形成되었다는 意見 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⁴⁾

다른 言語의 關係節을 보면 대개 그것이 核心名詞의 뒤에 놓이든지 앞에 서는 일이 많다.⁵⁾ 어떤 類型의 언어든지간에 관계절의 시제형태는 이에 대응되는 叙述構文의 시제형태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핵심명사 뒤에 놓이는 언어의 한 가지인 영어의 관계절을 보면 관계절 ([]부분) (1)은 (1')와 같이 展開된다([] 참조).⁶⁾

(1) The Woman [whose daughter you met] is Mrs. Brown.

(1') The Woman is Mrs. Brown; [you met her daughter].

한편 핵심명사 앞에 놓이는 언어의 한 가지인 일본어의 관계절을 보면 관계절 (2) ([]부분 참조)는 (2')와 같이 전개된다.⁷⁾

(2) [Yamada-San ga katte iru] saru 'The monkey which Mr. Yamada keeps'

(2') Yamada-San ga saru o katte iru 'Mr. Yamada keeps a monkey'

두 언어의 관계절의 시제형태를 전개된 叙述構文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⁸⁾

(3) 나도 [영수가 지은] 책을 읽었다.

(3') 영수가 어떤 책을 지었다; 그 책을 나도 읽었다.

(3')는 관계구문을 가진 (3)을 전개한 것인데 (3)의 관계구문 ([]부분)의 대응 서술형이 ‘……지었다’가 되어 형태가 判異하다. 영어나 일

4) 대표적으로 Ramstedt(1939:74)를 참조할 수 있다. 河野六郎(1951:60, 54), 金完鎮(1957)은 Ramstedt의 가설을 그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5) Comrie(1981:137-9)에 의하면 關係節의 類型을 “명사 뒤에 오는 것”(Post-nominal type)과 “명사 앞에 오는 것”(Prenominal typ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다.

6) 영어의 관계구문과 그 전개된 叙述構文은 Quirk et al.(1972:862) 참조.

7) 일본어의 관계구문과 서술구문은 McCawley(1976:295) 참조.

8) 例文은 南基心(1976, 1978:35)에서 가져왔다.

본어의 경우는 시제형태가同一했었는데 국어는 같은 과거 시제법주에 대해 '-ㄴ'과 '-었다'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中世語도 지금까지의叙述方式으로는 두 구문 사이의 관계가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⁹⁾

(4) 出家한 사루문……

(4') 사루미 出家하다

(5) 움즈기는 衆生……

(5') 衆生이 움즈기느다

(4)에 대응하는 것은 (4'), (5)에 대응하는 것은 (5')라고 할 수 있는데 (5)(5')에서는 '는, 느다'와 같이 부분적 相似性이 목격되나 (4)(4')에서는 현대어와 같이 형태가 異質的이다. 그런데 중세어에는 '나라'로 끝나는 한 동아리의 說明法語尾가 확인된다.¹⁰⁾

(6) 네 아비 ㅎ마 주그니라

(6') ㅎ마 주근 네 아비……

(6)은 단순한 설명법 '-나라'(주그니라)로 된 叙述構文으로서 이를 관형구문 (6')로 바꾸면 'ㅎ마 주근'이 되어 시제도 일치하고 모습도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어의 叙述性語尾體系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것을 冠形詞形으로 바꿀 수 있는 적절한 통사적 질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관형사형 표지 '-ㄴ, -근'의 根源을 캐 수 있고 현대어에서 관형사형과 叙述性語尾가 일치하지 않는 原因도 밝힐 수 있다. 필자는 우선 중세어, 특히 15세기 한글자료를 대상으로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形態 및 意味上의 상관성을 究明하고 冠形構文이 성립되는 규칙의 形式化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나아가서 叙述性語尾, 특히 설명법어미가 겪는 역사적 변모양상을 追跡함으로써 현대어에 와서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이 틈이

9) 허웅(1975:810, 823)에서는 중세어의 주체법과 대상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술구문을 관형구문으로 용축시키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10) 例文은 高永根(1981:59)에서 가져 왔다.

별어지게 된 所從來도 탐색해 보려고 한다.

II. 叙述性語尾와 冠形調形語尾의 形態上의 相關性

敘述性語尾란 說明法, 疑問法, 文章接續의 連結語尾 ‘-니’를 총괄하는 것이다.¹¹⁾ 종전의 중세어 文法研究에서 지적된 說明法語尾의 대표적인 것은 ‘-다(라)’로 끝나는 것이었다.

(1) 호다, 호누다, 호더라, 호리라

이들은 ホラ體(낮춤)이나 尊卑法에 따라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다’ 형태가 동사어간에 바로 붙으면 不定法, 先語末語尾 ‘-느-, -더-, -리-’를 앞세우면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을 形成하고 그에 相應하는 時制을, 과거, 현재, 미래 등이 표시된다.¹²⁾ 그런데 중세어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니라’로 끝나는 또 한 종류의 一連의 說明法語尾가 存在한다.

(2) ほ니라, ほぬ니라, ほ더니라, ほり니라

이들도 앞의 (1)의 語形들과 마찬가지로 尊卑法에 따라 변화한다. ‘-니라’가 語幹에 바로 붙으면 不定法, ‘-느-, -더-, -리-’를 앞세우면 直說法, 回想法, 推測法이 形成되어 그나름대로의 基本敘法을 이루고 있다. (1)(2)는, 가치는 同一하지만 使用面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1)은 翻釋敘法, (2)는 雜釋敘法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로 한 바 있다.¹³⁾

‘-니라’ 계통의 어미를 단순한 설명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첫째 설명법과 意味上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11) 종세어의 語尾體系에 대한 概括的인 설명은 高永根(1981:6-10) 참조.

12) 필자는 高永根(1981:10-29)에서 (1)의 語形을 基本敘法이란 베두리에 넣어서 그 시제를 파악한 일이 있다.

13) 자세한 논의는 高永根(1981:12, 16-7, 20, 22) 참조.

- (3)-1 碧雞坊은 在成都 호니라(杜謙 7:5b)
 (3)-2 “네 아비 호마 주그니라”(月釋 17:21a)
 (3')-1 市橋는 在成都西南 호다(杜謙 7:6a)
 (3')-2 “(世尊)……世間에 상네 이서 내 正法을 護持호라 호시이다”(釋詳 24:45b)

위의 用例는 설명법의 不定法 형태인데 (3)은 둘째설명법, (3')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첫째설명법이다. (3)-1과 (3')-1은 「西郊」라는 五言律詩의 註釋文인데 ‘在成都……’로 시작하고 있어 構文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같은 詩에서 첫째설명법과 둘째설명법의 형태가 수의로 바뀌어 쓰인다는 것은 두 형태의 가치가同一하다는 것을 實證한다.¹⁴⁾ 두 시언해는 먼저 原詩를 들고 독자의 이해를 돋고자 할 때는 번역자의 설명문을 붙인다. 위의 (3)-1과 (3')-1이 그러한 형태의 문장인데 이는 對話 아닌 地文으로서 [-상관성]의 장면 자질을 띠고 있으며¹⁵⁾ 중세어의 문장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이다. (3)-2는 둘째설명법이 대화, 곧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난 用例다. (3')-2는 (3)-2에 비교될 수 있는 첫째설명법이지라는 중세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번도상으로 볼 때 (3)-2가 훨씬 우세하다. 그것은 어쨌든 (3)-2와 (3')-2는 ‘죽었다. 하셨습니다’로 해석되므로 時制의 意味가 같다고 할 수 있다.

- (4)-1 尚書丞郎은 月給赤營大筆一雙 호누니라(杜謙 10:14a)
 (4)-2 “길해 를 기러 오시누니라”(月釋 8:100b)
 (4')-1 비해 새 노래 브르느다(金三 3:4a)
 (4')-2 “天龍鬼神들과 사물과 사물 아닌 것과 香華伎樂으로 상네 供養호습는 야이 뵈느다”(釋詳 13:24b)

위의 用例는 說明法의 直說法 형태다. (4)는 둘째설명법, (4')는 이

14) 이 用例는 이미 高永根(1981:12)에서 그 의미가 검토된 바 있다.

15) 필자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화와 같은 문장을 [+상관성]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지문과 같이 화자의一方的인 진술의 성격을 띤 문장을 [-상관성]의 자질을 띤 것으로 파악한 일이 있다(高永根 1981:55) 참조.

와 비교될 수 있는 첫째설명법이다. (4)-1은 앞의 (3)-1과 같이 두시언 해의 주석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화자의 樣態的 태도(後述)를 읽기가 힘든 것으로 중세어의 지문의 문장형태에서 흔히 목격된다. 다시 말하면 지문의 형태로 간주되는 (4')-1과 같은 價值를 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⁶⁾ 사실 중세어의 지문문장에는 직설법 '-느니라'가 앞서 말한 부정법의 첫째설명법 '-다' 및 둘째설명법 '-나라', 回想法의 첫째 설명법 '-더라' 및 둘째설명법 '-더니라'(後述)와 큰 의미의 차이 없이交替되는 일이 많다.

(4)-2는 대화에 나타나는 둘째설명법의 직설법 형태로 해석되는 것이다. 곧 (4')-2와 같은 첫째설명법의 가치를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4)-2는 安樂國이 往生渴를 부르는 八嫁女에게 “沙羅樹大王이 어듸 겨시뇨”라고 묻자 이에 대해 응답한 말인데 물을 길어 운다는 사실을 평범하게 陳述한다는 사실 이외의 화자의 다른 생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用例가 1·3人稱 의문법어미 ‘뇨’(겨시뇨)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보편적 경향이 아닌가 한다. (4')-2는 미륵보살이 文殊師利에게 하는 말인데 천륜의신 등이 공양하는 모습을 단순히 陳述한다는 점에서 (4)-2와 공통점을 보여 준다. 중세어에는 발화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단순히 서술할 때는 직설법의 첫째설명법과 둘째 설명법이 共存하고 있었음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¹⁷⁾

우리가 直說法의 둘째설명법을 體系세움에 있어 유의할 것은 이와 형식이 같은 直說原則法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原則法은 객관적 밀음에 속하는 사실을 청자에게 설득시킴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곧 화자의 樣態的 態度가 反映되는

16) (4')-1의 用例에 나타나는 '-느다'가 지문에 쓰이는 일은 흔치 않다. 이에 대한 해석은 高永根(1981) p.67의 각주(17) 참조.

17) 필자는 高永根(1981:16-7, 96)에서 다른 用例에 의지하여 직설법의 둘째 설명법의 '-느니라'의 의미를 해석한 바 있다.

것을 말한다.¹⁸⁾

(4)-3 “사루미 살면 주그미 이실썩 모로매 늙느니라”(釋詳 11:36b)

위의 用例는 五百太子가 연못가에 모여 앉아 물 밑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用法은 대개 화자의一方的陳述狀況에서 보편적이고 (4)-2와 같은 兩方的對話의 狀況에서는 단순한 陳述로 해석될 때가 많다. 그러나 兩方的 狀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原則法으로 해석되지 않는 바 아니다.

(4)-4 “이는 南閻浮提에 이서 一切 중생 자바 싸흘며 버하고 남진 겨지비 두 투 안자서 모다 머그며 맛날색 흔던 사름들하니 이제 내 소내 와 受苦를 헤느니이다”(月釋 23:79a)

위의 用例는 目連이 獄主에게 “이 獄옛 衆生은 前生에 므듯 罪業을 짓 관대 이런 受苦를 헤느뇨”라고 물으니 옥주가 목련에게 그 因果業報를 이상과 같이 설명한 것이다. 목련의 물음에 대한 단순한 답변으로 본다면 둘째설명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이 전생에 重罪를 지으면 죽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이 사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화자의 意圖가 內包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原則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原則法이 청자의 답변이 요구되지 않는一方的 詐語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의 用例는 兩方的 상황에 나타난 것이므로 둘째설명법으로 처리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더욱기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화자의 청자에 대한 단순한 陳述 이상의 의미를 주기 어렵다는 데서 원칙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用例도 앞의 (4)-2와 같이 1·3人稱의 문법어미 ‘-느뇨’(헤느뇨)와 呼應되어 있다.

앞서 검토한 用例는 動詞의 直說法 형태이다. 형용사와 지정사에서도

18) 原則法의 의미와 직설법의 둘째설명법과의 관계는 高永根(1981:92-106) 참조.

두 종류의 구분이 가능하다.¹⁹⁾

(5)-1 “眞實로 을호니이다”(月釋 8:94-5)

(5)-2 “世尊이시니라”(釋詳 23:41b)

(5')-1 “舍利弗아 너희 부렛 마를 고다 드르라 거초니 아니호니라”(釋詳 13:47b)

(5')-2 “더 藥師瑠璃光如來入 十二微妙上願이시니라”(釋詳 9:10a)

(5)-1, 2는 둘째설명법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5')-1, 2는 原則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5)-1은 長者가 원앙부인에게 “이 두 사루미 眞實로 네 항것가”라고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란 점에서 陳述行為가 兩方의이며 (5)-2는 比丘의 “네 스승이 누고”란 물음에 대한 遷集의 답변이란 점에서 兩方의 陳述機能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5')-1, 2는 청자의 답변이 요구되지 않는 一方的 陳述狀況에서 나타났으므로 原則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²⁰⁾

兩方的 狀況에서 나타나는, 형용사에 붙는 ‘-나라’가 原則法 아닌 둘째설명법이란 사실은 같은 문맥에서 두 형태가 수의로 交替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6) 僧이 趙州의 무로덕 “가하는 佛性이 있느니잇가 업스니잇가” 趙州 | 날오덕 “업스니리”(蒙法 51a)

(6') 중이 趵州의 무로덕 “가하는 佛性이 있느니잇가 업스니잇가” 趵州 | 날오덕 “업다”(蒙法 11b)

(6)과 (6')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同一한 内容을 묻는 거의 같은 形式의 文脈인데도 불구하고 둘째설명법과 첫째설명법이 뒤바뀌어 나타난다. (6)의 用例가 의문법어미 ‘-니잇가’(있느니잇가 업스니잇

19) 형용사와 지정사의 直說法은 그 형태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간에 ‘-나라’가 붙은 ‘하니라, 이니라’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高永根(1981:10-12, 66) 참조.

20) (5')-1, 2의 用例는 이미 高永根(1981:95)에서 의미해석이 시도된 바 있다.

가)와 호응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動詞에 붙는 ‘-느니라’와 形容詞・指定詞에 붙는 ‘-니라’가 특히 대화와 같은 [+상관성]의 장면에서 단순한 설명법과, 원칙법의 두 가지 기능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負擔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느니라(-니라)’의 설명법적 기능의 退化의 直接的인 動因이 되는 것이다.²¹⁾

(7)-1 漢入 時節에 長安애 누니 열자히 오니 쇼와 물왜 터리 추위 움치하고
송돈 흔더니라(原詩省略) (杜謙 10:40a)

(7)-2 “乾闥婆이 아들이 놀애를 불라 七寶金을 노더니이다”(月釋 21:190a,
月千其 422)

(7)-3 “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흔더시니이다”(釋詳 24:37b)

(7)-4 “無病이 第一이시니 놈 위호야 혼 句入 法도 나르신 저기 업고 상네
말 암더시니이다”(釋詳 24:39b)

(7')-1 뜨며 몸 마준 일이 다 願^{マタ} 둔외더라(月釋 10:30b)

(7')-2 “大王이 앗가esson 뜨디 업더시이다”(月釋 8:91b)

(7')-3 “實로 世尊 말 흔더이다”(月釋 9:36中 b)

위의 用例는 설명법의 回想法 형태인데 (7)은 둘째설명법, (7')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첫째설명법이다. (7)-1은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에 토대를 둔 陳述이 아니다. 이 시는 漢나라 시절에 눈이 많이 와서 가축들도 추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인데 과거사실을 단순하게 서술한 지문으로 간주된다. ‘-더니라’가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쓰이는 일은 석보상절 등의 초기 한글자료에 더러 보이며²²⁾ 두시언해의 주석문이나 언해문에도 그런대로 목격된다. (7')-1은 (7)-1과 같이 지문에 나타나는 回想法의 用例인데 과거사실을 단순하게 說話할 때 쓰이는 문장종결의 형태다.²³⁾ 중세어의 지문에는 앞서 살펴본 不定法의 ‘-니라, -다’, 直

21) 자세한 논의는 V 장 참조.

22) 지문에 나타나는 ‘-더니라’의 의미해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高永根 (1981:100-1) 참조.

23) 지문에 나타나는 ‘-더라’의 意味解釋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75) 참조.

說法의 ‘-느니라’, 이곳의 ‘-더니라, -더라’가 큰 의미의 차이 없이 사용되었다.

(7)-2는 [+상관성]의 별화장면에 쓰인 것이기는 하지만 화자 자신의 직접적인 體驗에 근거를 둔 陳述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例文은 月印千江之曲에서 단 두어 개 보이는데(後述) 위의 用例가 단순한 陳述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뒷받침된다. 위의 노래는 간달파의 아들이 노래를 부르며 친보금을 연주하는 소리를 如來가 듣고 그 소리를 三千大千世界에 들리게 했다는 이야기를 작자가 세존에게 흐쇼서體의 形式을 빌어 그 위업을 찬송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석보상절의 지문은 다음과 같다.

(7)-2' 그 僕 乾闥婆이 아들 일후미…… 玆문호 月釋 21:209a)

위 텍스트의 형태가 ‘-더라’로 끝났다는 것은 노래의 ‘-더니이다’가 단순한 진술이란 점을 더 분명히 해 준다. 또 ○ 노래의 짹이 不定法 ‘-니이다’로 끝나 있다는 것도 ‘-더니이다’가 體驗에 근거를 둔 陳述이 아님을 알려 준다.

(7)-2'' “世尊入三昧力에 苦空無常을 날아 大千世界 드로니이다”(月釋21: 190a)

(7)-3, 4는 話者가 자기의 경험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주의를 끌고자 하는 樣態性이 개입된 것으로 보아 回想原則法으로 처리할 수도 없지 않으나²⁴⁾ 필자는 생각을 바꾸어 回想法의 둘째 설명법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7)-3은 “예 엇던 功德을 뒷더신고”라는 王의 물음에 대한 尊者的 답변이므로 별화상황이 완전히 兩方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7')-2가 光有聖人의 “沙羅樹王이 八殊女 보낼 나래 앗가론 뜨디 업더녀”란 물음에 대한 勝熱婆羅阿比丘의 답변인 점을 고

24) 필자는 高永根(1981:100)에서 이런 接近法을 採擇한 일이 있다.

려할 때 ‘-더니라’와 ‘-더라’의 쓰임이 큰 차이가 없음을 確認할 수 있다. (7)-3의 ‘흐더시니이다’도 ‘흐더시이다’로, (7')-2의 ‘엄더시이다’도 ‘엄더시니이다’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7)-4와 (7')-3도 비슷한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7)-4는 (7)-3과 같은 發話狀況에서 목격되는 것인데 王의 물음에 대한 尊者의 답변이란 점에서 통보기능이 완전히 兩方的이다. (7)-4는 부처의 “내 니르던 究羅帝 眞實로 그러더니 아니 더녀”란 물음에 대한 善宿의 답변이란 점에서 양방적 발화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4와 (7')-3의 ‘-더시니이다’와 ‘-더이다’는 서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直說法의 둘째설명법 ‘-느니라(니라)’는 대개 1·3人稱疑問法 ‘-느녀(녀)’와 호응되고 있음을 더러 주목한 바 있다. 이런 점은 回想法에서도 그대로 기대할 수 있으니 (7')-2, 3도 의문법 형태 ‘-더녀’(엄더녀, 아니더녀)를 고려하면 ‘*엄더시니이다, *온더시니이다’에서 ‘나’가 缺落되어 形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니라’가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用例가 흔치 않아서 설불리 말할 수 없지만 ‘-느니라’와 같이 둘째설명법과 原則法의 기능을 同時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8) 諸法이 幻 은하니 幻 은홍도 得디 몽호리니라(口訣文 省略) (圓覺下 2-2 :11b)

(8') 境을 因하야 그로 알면 드위휠회 緣에 어줄하야 일마다 貞을 익흐리다 (楞嚴 2:23b)

위의 用例는 설명법의 推測法인데 (8)은 둘째설명법, (8')는 첫째설명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8)은 入佛經界經의 말을 引用한 것인데 화자의 樣態의 態度가 結付되지 않은 순수한 地文으로 보여진다.²⁵⁾ (8')는 이에 견주어 봄직한 추측법의 첫째설명법의 用例로서 역시

25) 用例 (8)에 대한 형태 분석과 意味解釋은 高永根(1981:22, 83, 103) 참조.

지문에 나타난 것이다. 추측법은 앞의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과는 달리 지문에서만 발견되고 그것도 앞의 한 用例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화와 같은 [+상관성]의 발화장면에서 '-리니라'가 나타나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설사 그런 장면의 用例라 할지라도 原則法으로 解釋된다.

(9)-1 周室이 다시 輿起^フ요미 맛당^フ니 孔門을 당다이^フ요미 를^フ리니라
(杜謡 6:21b)

(9)-2 거의 풍속이며 교화의 만분에 흐나하나 보태음이 이시리니라 (小學謡解書題 3a)

위의 用例가 原則法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9)-1은 杜甫가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로 생각되며²⁶⁾ (9)-2는 朱晦菴, 곧 朱子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16세기 자료인 翻譯小學(1518)과 小學謡解(1588)에는 '-리니라'의 用例가 더러 나오는데 모두 孔子 등의 聖賢의 말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推測原則法으로 해석된다.²⁷⁾

우리는 15세기 國語資料를 중심으로 '니라'로 된 또 한 종류의 설명법, 곧 둘째 설명법어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지문과 같은 [-상관성]의 발화상황뿐만 아니라 대화와 같은 [+상관성]의 장면에서도 分布되어 있었다. 설명법의 두 가지 형태를 장면에 따라 그 사용 빈도를 표시해 보기로 한다. 이 統計는 중세어의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엄밀한 分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중요문헌을 대상으로 한,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素描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動詞뿐 아니라 形容詞와 指定詞의 형태도 함께 보인다.²⁸⁾ 두 종류의 어미는 다소간에 話

26) 用例 (9)-1에 대한 의미해석은 高永根(1981:102) 참조.

27) 번역소학의 用例는 卷 8:2a, 6a에서, 소학언해의 用例는 卷 2:24a, 3:22b, 卷 5:41a, 68b에서 찾을 수 있다.

28) 형용사와 지정사의 형태는 형태상으로는 不定法이지만 의미상으로는 直說法이므로 직설법에 넣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高永根(1981:66, 73) 참조.

者標識의 先語末語尾를 取하고 있으나 번잡을 피한다는 뜻에서 省略하기로 한다.

(10) 장면에 따른 설명법의 使用現況

敘法 설명법의 구분 場面	不 定 法		直 說 法		回 想 法		推 測 法	
	는니라	는다	는니라	는다	더니라	더라	리니라	리라
[-상관성]	◎	△	◎	△	○	◎	△	△
[+상관성]	◎	△	△	○	△	○	×	◎

[부호] ◎: 우세, ○:보통, △:약세, ×:안쓰임

앞서 확인한 둘째설명법어미를 중심으로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둘째설명법은 드물기는 하지만 先語末語尾 '-오-'를 取하는 일이 있고 冠形詞形은 그러한例가 많기는 하지만²⁹⁾ 이곳에서는 '-오-' 缺如形만을 대상으로 한다. 형용사와 지정사의 형태는 번잡함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끝에는 참고를 위하여 첫째설명법을 불렀다.

(11)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패러다임

語尾 敘法	說明法(2)	疑問法	接續語尾	冠形詞形	說明法(1)
不 定 法	는니라	는녀	는니	는	는다
直 說 法	는니라	는녀	는니	는	는다
回 想 法	더니라	더녀	더니	더	더라
推 測 法	리니라	려(*리녀)	리니	(*리)	리라

위의 도표를 보면 推測疑問法과 推測冠形詞形이 體系上의 不均衡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법은 다른敘法이 모두 '-녀'로 끝나 있는데 推測法만은 그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으며 冠形詞形은 다른敘法

29) 자세한 패러다임은 高永根(1981:26-7) 참조.

이 ‘-ㄴ’으로 끝나 있는데 推測法만은 ‘-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는 추측의문법과 추측관형사형에서 추측법의 先語末語尾와 의문법어미 및 관형사형어미를 가려낼 도리가 없다.³⁰⁾ 만일 ‘(으)려’와 ‘(으)ㄹ’을 그대로 두고 형태소 분석을 하면 두 형태의 不具性이 바로 드러난다. 統合關係에서 볼 때 ‘리’와 ‘ㄹ’이 缺如된 ‘*어’ 및 ‘*’와 같은 형태가 의문법과 관형사형을 이루게 되고 또 系列關係에서 볼 때도 ‘리, ㄹ’ 대신 ‘느, 더’가 대치된 ‘*느어, *더어’ 및 ‘느, 더’가 의문법과 관형사형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體系를 보다 반듯하게 하고 推測疑問法과 推測冠形詞形에서 추측법과, 의문법 및 관형사형어미를 식별해 내기 위하여는 ‘흐려’와 ‘흘’의 형태를 손질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측의문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에 나타나는 ‘-녀’에 기대어 ‘*흐리녀’로 그 基底形을 결정하고 추측관형사형은 不定法, 直說法, 回想法에 나타나는 관형사형 ‘-ㄴ’과 설명법에 나타나는 추측법의 先語末語尾 ‘-리’에 기대어 ‘*흐린’으로 그 基底形을 결정해 보는 것이다.³¹⁾ 도표의 팔호안의 형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려하여 補充해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패러다임이 整然해지고 추측의문법과 추측관형사형의 분석도 順理的으로 해해질 수 있다.³²⁾

30) 국어의 推測冠形詞形이 不具의이라 함은 河野六郎(1951)과 이정민(1975)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前者は 連體形이 -n을 가지지 않고 -r을 가진다고 하였고(高永根 1981:23 각주 46 참조), 後자는 ‘는’과 ‘을’을 하나의 archsegment로 묶어서 關係化素(relativizer)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성을 제시하였다(語學研究 11-2, p. 304 참조).

31) 이곳의 기저형은 生成音韻論에서 쓰는, 抽象性을 뛰어넘은 underlying form에 어느 정도 가깝다(田相範 1977:109-22 참조). 한편 우리의 기저형의 개념은 Hockett(1958:281)의 theoretical base form과도 비슷한一面이 있다. 이중(1963:391)에는 이 이론에 기대어 중세어의 ‘나모’와 ‘낡’의 분화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나목’이라는 假想的基本形態를 설정한 일 이 있다.

32) 추측의문법과 추측관형사형의 分析上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高永根(1981:20-4) 참조.

이상은 구조적 관점, 곧 系列關係와 統合關係의 관점에서 추측의 문법과 추측관형사형의 기저형을 새로 세워 본 것이나 중세어에는 위와 같은 처리를 뒷받침하는 實際의 형태나 그에 버금가는 형태가 存在한다.

(11)-1 ㅎ리로소녀, ㅎ려뇨

(11)-2 ㅎ린

(11)-1의 분석은 추측의 문법의 기저형이 “*ㅎ리녀(뇨)”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ㅎ리로소녀’는 우선 ‘ㅎ+리+롯+오녀’로 분석되는데 ‘롯’을 뽑아 내면 “*ㅎ리오녀”란 형태가 얻어진다. ‘-롯-’은 感動法의 先語末語尾 ‘-듯-’이 추측법의 선어말어미 ‘-리-’ 아래서 교체된 것이다. ‘-오녀’는 ‘-으녀’가 ‘-롯-’에 同化된 것인으로 실제로는 ‘ㅎ리로소녀’는 ‘ㅎ+리+롯+으녀’로 분석된다. ‘ㅎ려뇨’는 ‘ㅎ+리+어+뇨’로 분석되는데 確認法의 선어말어미 ‘-어-’를 뽑아 내면 “*ㅎ리뇨”란 형태가 얻어진다. ‘ㅎ려뇨’는 설명의 문법의 語形이므로 이에 각이 되는 판정의 문법 어형 “*ㅎ려녀”가 존재할 가능성의 충분하며 이곳에서도 “*ㅎ리뇨”에 대립하는 “*ㅎ리녀”를 충분히 가상할 수 있다.³³⁾ 이렇게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면 ‘ㅎ리……녀’의 도습으로 실현됨이 文證되었는데 이는 추측의 문법의 기저형이 “*ㅎ리녀”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된다.

한편 (11)-2의 분석은 추측관형사형의 기저형이 “*ㅎ린”이라는 사실을 그런 대로 뒷받침 할 수 있다. 文證되는 ‘ㅎ린’은 統合되는 명사가 ‘전초, 後’에 그치고 있고 用例도 두세 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의미도 推測法(未來)이라기보다는 不定法(過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빙도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명사 앞에 ‘ㅎ린’과 같은 用例가 나타났다는 것은 추측관형사형의 기저형을 “*ㅎ린”으로 잡은 데 대

33) ‘ㅎ리로소녀’와 ‘ㅎ려뇨’의 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高永根(1981:22-3, 34, 42-3) 참조.

한 消極的인 뒷받침은 될 수 있다.³⁴⁾

우리가 추측의 문법과 추측관형사형의 기저형을 ‘*흐리녀’와 ‘*흐린’으로 잡은 것은 一次的으로는 패러다임上의 不均衡에 立脚한 것이고 二次的으로는 15세기 文獻資料에 기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15세기 이전의 借字資料와 方言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까? 어느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을 아직 實證하지 못하였다. 15세기 이전의 吏讀資料는 量도 얼마 안되거나 대개 叙述體로 된 단조로운 文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疑問法과 같은 형태는 좀처럼 눈에 띠지 않는다.³⁵⁾ 향가 자료에 국한해 보면 古代國語의 段階에 관형사형이 벌써 ‘-ㄴ’과 ‘-ㄹ’로 분화되어 있었고 推測疑問法도 중세어와 같이 ‘-려’ 옆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1 去隱春皆理米 <간 봄 몸 오리매> (纂竹旨郎歌)

(12)-2 臣隱愛賜戶母史也<臣은 두 수설 어시여> (安民歌)

(13) 奉叱良乙何如爲理古 <아아늘 엇디 흐릿고> (處容歌)

< >안의 解讀이 어느 정도 과녁을 맞추었다는 관점을 取하면³⁶⁾ (12)-1, 2에서는 관형사형 ‘-ㄴ, -ㄹ’이 확인된다. 그리고 (13)에서는 ‘-려’가 있었음을 類推할 수 있다. 중세어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흐릿고’는 ‘흐려’의 褐야씨體나 褐소서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方言에서도 비교적 국어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제주방언을 보면 回想冠形詞形이 ‘-단’이란 것 이외는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방언은 관형사형에 관한 한限 현대공통어나 중세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 중세어의 ‘흐려뇨, 흐리로소녀’에 대응될 만한 형태도 方言자료에는 목격되지 않는다.³⁸⁾ 이상의 사실들에 기대면 추측의 문법 ‘*리녀’와 추측관형사형

34) ‘흐린’의 분석과 그 의미상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23, 87) 참조.

35) 이 점에 대해서는 朴喜淑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36) 해독은 편의상 金完鎮(1980)에 기대었다.

37) ‘흐려’의 活用에 대해서는 高永根(1981:21) 참조.

38) 제주도 方言에 대해서는 李崇寧(1957), 玄平孝(1974), 李男德(1982)를 참

“-린”이 “-려, -ㄹ”로 바뀐 것은 文獻 이전의 단체로 거슬러 올라 간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호려’와 ‘홀’의 기저형인 “*호리녀, *홀린”은 **hArijnja, *hArijin*으로 표기할 수 있다. 중세어의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조건의 하나가 *ij* (=iy)라는 견해³⁹⁾를 받아들인다면 추측법의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도 ‘ㄱ’이 ‘ㅇ’로 교체되므로 (‘호리어다, 호리어든’등) ‘리’를 *rij*로 잡을 수 있다. 두 기저형을 실재형과 비교해 보면 *ijn*이 消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방점참조).

(13)-1 **hArijnyə cf. hArjə*

(13)-2 **hArijn cf. hAr*

곧 *ijn*이 *r*과 *jə* 사이 및 *r*과 休止 사이에 음으로써 탈락되는 것인데 이로써 실재형 ‘호려’와 ‘홀’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감동법 ‘-듯(롯)-’과 확인법 ‘-어-’가 개재되면 *ijn*이 탈락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ijn* 탈락의 절대적 조건은 추측법과 의문법 어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점이다. 단 *rijn*이 ‘전초, 後’ 앞에서는 ‘린’으로 실현되는 일도 없지 않으나 이는 절대적 制約은 될 수 없다. 대부분은 위의 두 환경에서 단순한 ‘-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호 전초, 혼 後). *ijn*의 탈락 현상을 현재로서는 어떤 음운규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식지 않다. 앞서 말한 환경에서 *ijn*이 탈락되는 일이 다른 경우에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國語音韻論의 연구에서는 그런 사실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환경이라는 일종의 형태론적 제약에 의한 실현으로 해석해 두고자 한다.⁴⁰⁾

조하였고 康貞姬교수의 도움을 많이 입었으며, 경상도 방언은 崔鶴根(1979: 1586-667), 전라도 방언은 이기갑(1982)에 의지한 바 많고 현지 주민을 통한 접촉도 큰 도움이 되었다.

39) ‘ㄱ’과 ‘ㅇ’의 교체의 條件이 *r*과 *j* (=y) 뒤에서라는 사실은 李基文(1972:26, 128-9) 참조.

40) 이 문제에 대하여는 李秉建교수의 助言에 힘입은 바 크다.

추측의 문법과 추측관형사형의 기저형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叙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패러다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叙述性語尾에서 '-니(-)'의 요소가 공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니'는 접속어미를 가리키고 '-니-'는 뒤에 '라, 어'등이 오는 설명법과 의문법을 가르킨다.⁴¹⁾ 또 '-니(-)'는 관형사형 '-ㄴ'과 형태상의 類似性이 인식된다. 특히 不定法 '흐니라, 흐녀, 흐니'등을 '흐+이라, 흐+여, 흐+이'로 分析하면 관형사형과 同一한 형태가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상의 同一性이 安當性을 지니려면 意味上의 共通性도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

III.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意味上의 相關性

이곳에서는 제Ⅱ장에서 確認했던 둘째 설명법어미를 포함한 '-니(-)'系列의 叙述性語尾들과 冠形詞形語尾가 표시하는 時制를 比較함으로써 형태상의 상관성을 意味論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한다.⁴²⁾

A. 不定叙述性語尾와 不定冠形詞形語尾

(1a)-1 그의 ……五百 사르미 弟子 | 두의아지이다 흐야 銀돈 흐 날꿈 반조분
나라(月釋 1:9a)

(1a)-2 和尙은 스스로를 니르니라(釋詳 6:10a)

(1a)-3 夫妻 흐야 사로몬 형더기 조티 몬흐야 輪回물 뱃디 못흐는 根源일씨 죽
사잇 因緣이라 흐나라(月釋 1:12a)

(1a)-4 世尊이 드로시고 五色光明을 내야 비취신대 帝釋이 鬼神 브려 세 畫
다리를 노흐니……을 흐 너친 馬瑙 | 리라(釋詳 11:12a)

41) 의문법의 '-너'에 나타나는 '너'는 하나의 形態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高永根 1981:13) 둘째 설명법의 '-나라'의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치리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뒷날을 기약한다.

42) 필자는 高永根(1981:56-88)에서 부정법, 적설법, 회상법, 추측법의 時制를 非內包文과 內包文으로 구별하여 논의한 일이 있다. 본장은 前日의 叙述內容에 기대어 지문과 대화의 순서로 다시 배열하고 내용을 補完·擴充하는 方向으로 展開된다.

위의 用例는 地文, 곧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不定法의
叙述性構文이다. [-상관성]의 장면은 話者와 청자가 공동으로 주고 받
는 발화행위가 아니고 作者 내지 說話者가 一方的으로 陳述하는 것이기
때문에 指示性이 회박하여 시제가 明白하지 않거나 缺如되어 있음이 보
통이다.⁴³⁾ (1a)-1은 說話者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득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현대어의 地文文體 ‘받았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제성은
직설법 ‘받잖느니라’와의 系列關係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만 [+상
관성]의 발화행위(後述)만큼 시제성이 뚜렷하지 못하다. (1a)-2는 「和
尙」의 뜻을 매긴 것으로서 시제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보편적 내지
일반적 사실에 대한 陳述이다. (1a)-3도 (1a)-2와 같이 보편적 사실을
陳述하는 것으로 특별한 시제성이 설정되지 않는다. (1a)-2의 ‘너르다’
는 指稱動詞이며 (1a)-3의 ‘흐다’는 引用動詞인데 이들은 動作性을 적
극적으로 띤 말이 아니다. 이런 점도 두 구문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제
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原因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현대어에서는 ‘이른
다, 한다’로 옮겨져 현재형만을 取하는데 중세어는 부정법 ‘-느니라’
뿐만 아니라 직설법 ‘-느니라’와도 統合된다(後述)⁴⁴⁾ (1a)-4는 接續語
尾 ‘-니’가 [-상관성]의 장면인 地文에 나타난 것인데 主節의 시제
(~ 참조)보다 앞서 있다. 帝釋이 세 줄다리를 놓은 것은 오른쪽에 馬
躍 등이 놓인 動作보다는 先行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설법
‘-느니’와의 系列關係를 통해서 설정되는 것이지만 과거시제성이 그렇
게 뚜렷한 것은 아니다.

(1b)-1 阿育王 설 나래 鐵輪이 空空으로서 누라오니 그저 … 鬼神이 다
讚嘆 허더라(釋詳 24:13a)

(1b)-2 罪은 罪 지손 사통 가도노 짜히니(月釋 1:28b)

43) [-상관성]의 장면에 있어서의 시제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55-
6) 참조.

44) ‘흐다’와 ‘너르다’의 의미특성과 구문특성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59)
참조.

(1b)-3 主藏臣寶는 藏 고슴안 臣下 1 니(月釋 1:27a)

(1b)-4 帝釋은 西天 마랫 釋迦……陀羅를 조려 널운 만리니(月釋 1:31ab)

(1b)-5 夜叉는 놀나고 모니다 훈 뜨더니(月釋 1:14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發話場面에 나타나는 不定法의 冠形構文이다. (1b)-1은 과거사실을 설화하는 구절에 나타난 관형구문인데 아유왕이 등극한 것은 주절의 시제에 先行한다. 그러나 이것이 [−상관성]의 장면지질을 떠었기 때문에 과거시제성이 명백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런 시제성은 직설법 ‘서눈’과의 系列關係에 依存한다. (1b)-2는 「獄」의 뜻을 매긴 말인데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으나 보편적 사실에 대한 陳述이므로 정확한 시제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 서면 ‘짓눈’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미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곧 현재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사람도 投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b)-3도 뜻매김의 구문인데 주절의 시제와는 무관하다. 이때에도 ‘고슴아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b)-4, 5는 앞의 (1a)-2, 3의 指稱動詞 ‘너르다’와 引用動詞 ‘호다’가 관형사형으로 모습을 바꾼 것인데 보편적 사실에 대한 陳述이므로 특정한 시제를 주기가 어렵다. 주절의 시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2a)-1 “내 아비 𠂊마 주그니라”(月釋 17:21a)

(2a)-2 “부데 混槃호시니여”(釋詳 23:20b)

(2a)-3 “내 𠂊마 積心호니 업예 住호며 降호리잇고”(金言 2:4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發話場面에 나타나는 不定法의 叙述性構文이다. [+상관성]의 장면은 앞의 [−상관성]의 장면과는 달리 화자와 청자가兩方的으로 말을 주고 받는 상황이므로 指示性이 뚜렷하여 시제가 비교적 분명하다. (2a)-1은 ‘죽었다’의 뜻으로서 이러한 의미는 직선법 ‘죽느니라’와의 系列關係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과거관련의 시간

부사 ‘흐마’에 의해 그런 의미가 더 뚜렷이 浮刻된다. (2a)-2도 事件時가 發話時에 先行하는 것으로서 ‘열반하였느냐’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는 직설법 ‘호시는니여’와의 系列關係를 통해서 나타난다. (2a)-3은 ‘발심했으니’로 받아들여지니 접속구문의 사건시가 主節의 시제(~~) 보다 앞설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는 직설법 ‘發心호노니’와의 系列關係에 의해서도 드러나지마는 과거관련의 시간부사 ‘흐마’에 의해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게 뒷받침된다.

(2b)-1 “이세 든 사루문 죽니이니 문호는니라”(釋詳 24:14b)

(2b)-2 “이 如來 나신 싸히니이다”(釋詳 24:35b)

(2b)-3 “鹿母夫人이 나흔 고줄 어의 봄립다”(釋詳 11:32b)

(2b)-4 “이 싸히 竹林國이라 흔 나라하이다”(月釋 8:94a)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 장면에 나타나는 不定法의 冠形構文이다. (2b)-1은 한 상인의 아들이 지옥문에 들어 왔을때 모진 놈이 한 말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모진 놈이 王에게 “사루미 이 門 안해 들어든 다시 몬 나귀 흥야지이다”(釋詳 24:14a)라고 한 말과 관련시키면 반드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無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구문은 ‘드는’으로 바꾸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크게 생기지 않으며 이는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지시성이 회박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2b)-2는 如來가 태어난 것은 명백히 主節의 時制보다 앞서며 (2b)-3도 鹿母夫人이 꽃을 낳은 시간은 그것을 버린 主節의 사건시보다 앞선다. 이러한 의미는 직설법 ‘나시는, 낫는(낳는)’과의 系列關係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2b)-4는 사정이 다르다. 비록 [+상관성]의 장면에 쓰이긴 했어도 앞의 (1a)-3과 같이 동사 자체가 동작성이 뚜렷하지 않은 引用動詞이며 구문자체가 지시성이 회박하므로

45) 필자는 高永根(1981:62)에서 “出家한 사루문 쇼히 존니 아니호니……”란 구문에 대해 비슷한 해석을 시도한 일이 있다.

구체적인 時制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종세어는 직설법 ‘호논’, 추측법 ‘흘’이 수의로 사용되었다(後述).

부정법의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시제를 [−상관성]과 [+상관성]의 두 발화장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결과 그 의미상의 성격이 거의 일치함을 確認할 수 있었다.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나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는 일도 없지 않으나 과거 시제성이 명확하지 못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形態, 곧 직설법으로 바뀌어지는 일도 있었다. 또 사건시가 발화시 내지 주절의 시제와 無關한 경우에도 부정법이 쓰이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다른 형태로의 치환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대부분 사건시가 발화시 내지 주절의 사건시에 앞서고 있어서 과거시제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화장면에서도 구문의 性格이 지시성이 회박하거나 동작성이 뚜렷지 않은 동사에 연결될 때는 다른 형태로 교체될 수 있다.

B. 直說敘述性語尾와 直說冠形詞形語尾

- (1a)-1 唐制에 百官을 賦水호느니라(杜詩 10:24a)
- (1a)-2 大梵天王이 婆婆世界를 交음아느니라(釋詳 6:16b)
- (1a)-3 이 四天王도 須彌山 하리에 있느니라(月釋 1:31a)
- (1a)-4 땅 가들미 시방마조물 婚姻하다 호느니라(釋詳 6:16b)
- (1a)-5 죄 격도 아니하고 술히 지도 여회도 아니호느니라(月釋 1:26b)
- (1a)-6 이 香이 高山이라 흥 위해서 나느니 그 뒷보오리 쇠머리 그통썩(月釋 1:27a)
- (1a)-7 八分은 ……八齋라 ①호너 ……八分齋를 八支齋라도 ②호느니 ……八齋라 호느니라(釋詳 9:18a)
- (1a)-8 十萬億土 니나아 호 世界 있느니 일후미 極樂이니(月釋 7:56a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直說法의 用例다. 직설법에는 동사에 붙는 ‘−느니라’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지정사에 붙는 ‘−니라’도 포함하였다.⁴⁶⁾ (1a)-1은 原詩의 주석문인데 당나라 때 벼슬아치

에게 얼음을 주던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번역자가 唐制를 설명한 것이니 과거시제로도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부정법 ‘-다, -니라’, 회상법 ‘-더라, -더니라’가 수의로 교체된다. (1a)-2는 「尸棄」에 대한 뜻풀이인데 사건시는 발화시와 無關하다. ‘マ술알다’에 ‘-느니라’가 붙었다는 것은 A의 (1b)-3이 ‘マ술아는’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뒷받침이 된다(前述). 한편 ‘マ술안’의 用例에 비추어 보면 이 用例 역시 ‘マ술아니라’로도 나타날 수 있다. (1a)-3은 存在詞 ‘잇다’의 用例인데 앞의 것과 같이 발화시와는 관계없는 사실을 陳述하는 것이다. (1a)-4는 앞의 不定法의 (1a)-3과 같이 引用動詞 ‘호다’에 나타난 직설법의 用例다. 인용동사로서의 ‘호다’는 이렇게 不定法과 直說法을 수의로 선택하였다. (1a)-5는 「玉女寶」에 대한 뜻풀이로서 형용사에 ‘-니라’가 쓰인 것인데 발화시와 사건시는 無關하다. (1a)-6도 접속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 (=발화시)와는 관련이 없다. 「香」이 「高山」이라고 하는 산에서 나는 것은 발화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1a)-7은 引用動詞 ‘호다’가 직설법 ‘-느니’를 취한 것인데 (② 참조) 부정법 ‘-니’도 가능한 것(① 참조)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다. 어느 形態를 선택해도 주절의 시제 (~~)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적 사실에 대한 陳述이다. (1a)-8은 存在詞 ‘잇다’에 직설법 ‘-느니’가 붙은 것인데 주절의 시제 (~~)와는 관련이 없다.

(1b)-1 길을 츠자 부딪치로 가느 저괴 城門에 내드라 하늘 祭후던 짜흘 보고 걸 헉다가……(釋詳 6:19a)

(1b)-2 默는 거느 중성이라(月釋 21:113a)

(1b)-3 楞伽山이……神通 있는 사론미사 가느니라(釋詳 6:43b)

(1b)-4 明行足은 불흔 형여기 마조실 씨라(釋詳 9:3a)

이상은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冠形構文의 用例다. (1b)-1

46) 형용사와 지정사의 직설법은 부정법 형태 す에 의지한다. 자세한 論議는 高永根(1981:66, 73) 참조.

은 須達이 부처를 찾아가는 모습을 설화한 것인데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재시제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간, 가던, 갈’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後述). (1b)-2는 「獸」라는 글자의 뜻 풀이인데 관형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경우 중세어에서는 부정법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A의 (1b)-2에서 살펴보았고 그런 예는 흔히 복제된다.⁴⁷⁾ (1b)-3은 존재사 ‘잇다’의 치설법 형태인데 이 역시 주절의 시제와는 큰 관계가 없다. (1b)-4는 형용사의 冠形構文인데 이 역시 주절의 시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 사실에 대한 陳述이다.

- (2a)-1 “길에 물 기리 오시느니라”(月釋 8:100b)
- (2a)-2 “부대시다 호느녕다”(釋詳 6:18a)
- (2a)-3 “고봉니이니”(月釋 7:10b)
- (2a)-4 “眞實로 우파 종이니이다”(月釋 8:94b)
- (2a)-5 “스승니비 엿던 사르미관티 쥬벼느로 이 門을 이르시느니잇고”(月釋 23:84a)
- (2a)-6 “大施主의 功德이 하너 지그너”(釋詳 19:4a)
- (2a)-7 “앗가분 뜨니 있느니여”(釋詳 6:25b)
- (2a)-8 “네 이세 受흐느니 다 如來へ 威力이론 고돌 아다라”(釋詳 9:28a)
- (2a)-9 “우리는 나 부enty 아들 존호니 如來 像체 우리를 아두리라 니른시느니이다”(月釋 13:32-3)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叙述性構文이다. (2a)-1은 沙羅樹大王이 어디 있느냐는 安樂國의 물음에 대한 八嫁女의 답변인데 사건시는 발화시와 거의 일치하므로 현재시제를 표시한다고 할 것이다.⁴⁸⁾ 이러한 시제성은 부정법 ‘오시느니라’와의 系列關係를 통해서 표시되는 것이다. (2a)-2는 乎야써體의 형태인데 ‘흐다’가 引用動詞로 쓰

47) 다음 用例가 그려하다.

馬兵은 물론 兵이오 車兵은 車의 물론 兵이오 步兵은 거론 兵이라(月釋 1:27b)

이 문제에 관련된 論議는 高永根(1981:70-1) 참조.

48) 이 用例에 대한 의미해석은 Ⅱ 장 用例 (4)-2의 설명부분 참조.

인 것이다. 이 경우는 不定法 形態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았는데 이때는 비록 [+상관성]의 발화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시성이 약하여 특정한 시제를 표시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2a)-3은 형용사의 用例로서 부처가 難陀에게 “네 겨지비 고봉니여”라고 현재시제로 문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인데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여 現在時制의 성격이 충분하다. (2a)-4는 지정사의 用例인데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니 시제는 현재이다. (2a)-3, 4는 回想法 ‘곱더니이다, 봄이러니이다’와의 系列關係에 의해 나타난다. (2a)-5는 부처의 下命을 받은 目連이 어머니를 찾으려 錫仗을 흔들어 문을 열고 지옥에 이르렀을 때 옥졸이 목련에게 묻는 말인데 문을 연 동작은 발화시 직전이거나 거의 同時일 수 있으므로 크게는 현재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제성은 부정법 ‘여르시니잇고’와의 系列關係에 의해 나타난다. (2a)-6은 (2a)-3과 같이 형용사가 부정법 형태를 취한 것인데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므로 현재시제이다. 이러한 시제성은 回想法 ‘하더녀, 쳐더녀’와의 系列關係에 의존하는 것이다. (2a)-7은 (1a)-3, 8, (1b)-3과 같이 존재사 ‘잇다’의 직설법이다. 같은 계열의 ‘없다, 거시다’는 형용사, 지정사와 같이 부정법 형태를 가지는데 ‘잇다’만은 동사와 거의 같은 活用形態를 띠는 것이다.⁴⁹⁾ 이 구문 역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데 그것은 回想法 ‘잇더니여’와의 대립관계에 의존한다.

(2a)-8은 접속구문의 시제가 주절시제, 곧 발화시와 일치하니 현재시제의 성격이 뚜렷하다. 현재관련의 시간부사 ‘이제’의 쓰임에 의해 그런 사실이 더 鮮明해진다. 이러한 시제성은 부정법 ‘受흐니’와의 계열 관계에 기대는 것이다. (2a)-9는 형용사의 직설법의 기능인데 접속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부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적 사실이므로 指示性이 회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절의 시제도 반드시 발화시에

49) 중세어의 ‘잇다’의 活用上의 특성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15, 67-8) 참조.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문은 전반적으로 지시성이 희박하거나 缺如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무리 [+상관성]의 장면차질을 지녔더라도 보편적 사실에 관련될 때는 지시성이 희박해지거나 缺如될 수도 있다.⁵⁰⁾

(2b)-1 “이 지의 사도 열우니며 아히며 現在 未來 百千歲中에 惡趣를 기리 어회리나”(月釋 21:99a)

(2b)-2 “이 바리엣 몰애를 내 듣니는 짜해 까라라”(釋詳 24:9b)

(2b)-3 “이리 行情들호……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고기며 모마라도 비는 사 른 물 주리어니 흙물며 너나문 천라이쓰녀”(月釋 9:30b)

(2b)-4 “罪苦 있는 衆生을 너비……解脫케 호야지이다”(月釋 21:29b)

(2b)-5 “이리 묘호 緣으로 亡者 | 惡道를 여회며”(月釋 21:126b)

(2b)-6 “다 如來入 成力이론 고돌 아라라”(釋詳 9:28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冠形構文이다. (2b)-1은 世尊이 普廣菩薩에게 하는 말인데 관형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현재시제다. 이러한 시제성은 부정법 ‘산’과의 系列關係에 의해 形成된다. (2b)-2는 세존이 阿難에게 하는 말인데 관형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거의 일치해 보이므로 현재시제임이 틀림없다. 오히려 들판 내지 반복의 의미를 띤 현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제성은 부정법 ‘듣닌’, 회상법 ‘듣니던’과의 系列關係에 의해 파악된다. 그런데 이 말이 [-상관성]의 말, 곧 地文으로 바뀐 다음의 用例는 사정이 다르다.

(2b)-2' 阿難이 그 바리엣 몰애를 如來 듣니시는 짜해 쓰니라(釋詳 24:11a)

위의 用例는 (2b)-2에서 세존이 시킨대로 했다는 것을 석보상절의 작자가 [-상관성]의 빌화행위인 地文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빌화행 위에서는 ‘듣니시는’을 ‘듣니신’이나 ‘듣니던’으로 바꾸어도 의미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는 앞에서 [-상관성]의 장면이나 지시성이 약한 구

50) 상관성과 지시성의 상호관계는 高永根(1981:55-6) 참조.

문에서 관형사형의 교체가 수의로 일어남을 목격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2b)-3은 無毒의 떨이 세존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관형구문 ‘비는 사롭’은 특정한 人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주절의 시제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그 시제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든다. (2b)-4는 存在詞 ‘잇다’의 직설관형구문을 가진 用例인데 이 역시 [+상관성]의 발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이 분명하지 않다. ‘罪苦 있는 衆生’이란 일반적 사실에 대한 표현이므로 주절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b)-5, 6은 形容詞와 指定詞의 관형구문을 포함한 것인데 지시성이 뚜렷하여 주절의 시제에 일치하는 현재시제라 할 수 있다.

直說法의 敘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시제도 부정법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상관성]의 발화상황에서는 대부분 사건시를 발화시나 주절의 시제와 관련하여 의미해석을 하기가 어려웠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시제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았으나 발화시나 주절의 시제와 관련된 현재시제로의 해석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성]의 발화장면에서는 대부분 사건시가 발화시나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현재시제로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 경우에도 지시성이 약하거나 결여되었다고 간주되는 구문은 일정한 시제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C. 回想敘述性語尾와 回想冠形詞形語尾

(1a)-1 劍 일후른 우흘브터 세누니…時節人 한 사루미 것거 보습더니라(月釋 18:83a)

(1a)-2 부례 舍衛國에 겨시거늘 帷山 中에 五百 도조기 이서 길해 나 사롭 티고 도죽흐더니 如來 方便力으로 혼 사루물 징그르샤……帷山으로 가시더니(月釋 10:27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回想法의 敘述性構文이다. (1a)-1은 「劍」을 세는 방법을 설명한 月印釋譜 편찬자의 말인데

부정법 ‘보수^부니라’, 직설법 ‘보습^느니라’, 첫째설명법 ‘보습^더라’로 바꾸어도 의미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편찬자의 직접적 경험과 관련되지 않는,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 사실에 대한陳述인 것이다. (1a)-2도 설화자의 말인데 주절의 시제보다는 앞서 있지만 경험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제의 설정이 쉽지 않다. 이 경우 부정법 ‘도죽^흐니’, 직설법 ‘도죽^흐느니’로 바꾸어도 의미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1b)-1 이는 普薩 行^호던 衆生 을 나르사니라(釋詳 13:51a)

(1b)-2 그 東山에 일가^것 祥瑞 나며 출^던 東山이 어^위며(月釋 2:28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冠形構文이다. (1b)-1은 구문 자체가 일반적 사실에 관련되어 있고 ‘나르다’가 지칭동사라는 점에서 지시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절의 시제(—)와 관련하여 관형구문의 시제를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行^호던’은 부정법 ‘行^흐’, 직설법 ‘行^흐느’으로 바꾸어도 큰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의 叙述性構文의 ‘-더니라, -더니’와 같이 과거사실에 대한 막연한 표시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형구문의 主體인 「衆生」의 동작을 설화자가 직접 목격한 것을 陳述한 것이 아니다. (1b)-2도 비슷한 方式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구문 역시 관형구문의 主體인 「東山」의 상태를 설화자가 직접 體驗하여 叙述한 것이 아니고 「東山」의 과거의 상태를 막연히 이야기한 것이다. 관형구문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 있으나 정확한 시제의 설정은 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이 구문도 直說法 ‘좁은’으로 바꿀 수 있다.

(2a)-1 “홍경 바지 둘 히 몰 너아 天神^人과 비더니이다”(月千其 86)

(2a)-2 “無病이 第一이리시니 놈 위^호야 호 句人 法도 나르신 저기 업고 상 네 말 업더시니이다”(釋詳 24:39b)

(2a)-3 “뉘 닐오덕 어마니미 이세 잇다 흐더니잇고”(月釋 23:82a)

- (2a)-4 “沙羅樹王이 八蝶女 보낼 나래 앗가분 뜨니 업더니”(月釋 8:91b)
 (2a)-5 “내 지비 이서 상네 環刀 | 며 막다히를 두르고 이서도 두립더니 이제
 흥오사 무덟 서리옛 나모 아래 이서도……”(月釋 7:5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敘述性構文이다. (2a)-1은 第Ⅱ章 (7)-2와 같이 月印千江之曲에 나타나는 것인데 화자의 直接的 경험에 근거한 陳述이 아니다.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이런 경우 不定法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보았는데 [+상관성]의 장면에서도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 詩의 짹이 되는 말이 不定法(과거시제)으로 나타나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2a)-1' “수^음神靈이 길해 나아 뵈야 世尊을 아쉽게 흐니이다” (月其 86)

(2a)-2는 比丘가 王에게 자기가 경험한 博拘羅의 행적을 회상하여 말하는 것인데 경험시는 과거시제라 할 수 있지마는 경험 당시의 시제는 현재이다.⁵¹⁾ 이러한 시제성은 직설법 ‘업느니이다’와의 系列關係에 의해 표시된다. (2a)-3은 獄主가 目連에게 경험사실을 회상시켜 물어보는 것인데 시제는 앞의 예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부정법 ‘흐니잇고’, 직설법 ‘흐느니잇고’와의 系列關係에 의존하는 것이다. (2a)-4도 같이 설명할 수 있다. 光有聖인이 比丘에게 主體인 沙羅樹王에 대해 경험한 것을 回想시켜 묻는 것이다.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가 되나 경험시를 기준하면 현재이다. 이러한 시제적 성격은 (2a)-2와 같이 직설법 ‘업스시니이다’와의 系列關係에 依存하는 것이다. (2a)-5는 주절의 시제(—)와 비교하면 이에 앞서 있고 경험시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이다. 이러한 시제성은 직설법 ‘두리^음니’와의 계열 관계에 의존한다.

- (2b)-1 “내 흐면 이리 基히 외다소이디”(釋詳 24:18a)

51) 國語의 回想法은 두 가지 관점에서 時制解釋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高永根(1981:90) 참조.

- (2b)-2 “諸佛이 滅度하신 後에 아파나 모수물 보다라비 가지던 사물들로 다
하마 佛道를 일우며……”(月釋 13:51a)
- (2b)-3 나도 人生이 디나가는 새 旰투니 네 사던 모술흔 이제 빈 村이 ㄷ의
옛도다(原詩省略) (杜謠 19:39b)
- (2b)-4 언맛썩 羽獵을 외수울고 담다이 구슬 낙션 시내흔 旰무치리라(原詩省
略) (杜謠 19:16a)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回想法의 冠形構文이다. (2b)-1은 王이 比丘에게 하는 말인데 관형구문의 시체는 回想法인 주절의 시체(~~)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과거시제라고 할 수 있으며 王 자신의 직접적인 體驗事實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중세어의 回想法의 用法에 어긋나지 않는다.⁵²⁾ 이러한 시체성은 부정법 ‘흔’, 직설법 ‘호 눈’과의 系列關係에 의해 표시된다. (2b)-2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구문은 부처가 舍利弗에게 하는 말 가운데의 一節인데 관형구문은 여러 부처가 멸도한 후에 사람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졌다는 사실을 부처가 직접 目擊한 것이 기초가 되어 있으므로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回想法의 用法과 차이가 없다. (2b)-3도 杜甫의 옛날 살던 마을에 대한 陳述이니 중세어의 回想法의 用法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2b)-4는 문제가 다른 것 같다. 이는 주석문에 의하면 太公望이 시내에서 구슬을 낚던 故事를 자기의 처지에 비유한 것인데 太公望이 구슬을 낚는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이런 구문은 비록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난 것이라 할지라도 用法에 있어서는 (1a)와 같 은,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둘째설명법어미와 관련시킬 수 있다.

回想法의 叙述性構文과 冠形詞形構文의 時制도 크게는 直說法과 不定法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에 있어서는 同一視할 수 없는 면도 없지 않다.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은 설화자의 직접적 體驗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사실을 陳述하고 있다. 이 때

52) 중세어의 回想法의 통사상의 특징은 高永根(1981:76) 참조.

는 앞의 부정법, 직설법의 경우처럼 다른 형태로 바꾸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敘述性構文은 화자나 청자의 直接的인 體驗에 근거해 있지마는 冠形構文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은 설화자의 體驗事實과 관련되지마는 앞의 [-상관성]의 장면과 같이 설화자의 체험과 관련되지 않은 構文도 발견되었다.⁵³⁾

D. 推測敘述性語尾와 推測冠形詞形語尾

推測敘述性語尾 가운데서 ‘-니라’로 끝나는 推測說明法語尾는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설명법어미로써 補充하기로 한다.

(1a)-1 諸法이 幻 은 허니 幻 은 흄도 得디 물 허리니라(口訣文省略) (圓覺下 2-2:11ab)

(1a)-2 境을 因 허야 그르 알면 드위 훨회 緣에 어를 허야 일마다 眞을 일 흄리라(楞嚴 2:23b)

위의 用例는 [-상관성]에 나타나는 推測法의 敘述性構文이다. 이런 장면에 사용되는 推測法의 敘述性構文은 매우 드물다. 더욱기 推測接續連結語尾 ‘-리니’의 用例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1a)-1은 제Ⅱ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文獻(入佛經界經)에 나타난 말을 引用한 것으로 작자의 말이다. 발화시(집필당시)나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특별한 樣態性의介入없이 단순하게敘述하거나 추측하는 것 같다. (1a)-2도 발화(집필 내지 설화) 당시의 일을 추측하는 데 불과하다.

(1b)-1 그 지비서 차반 밍글 쏘이 워즈런 허거늘(釋詳 6:16a)

(1b)-2 그 鬼神들히 月食害 저거 八萬四千塔을 흔며 세니(釋詳 24:25a)

(1b)-3 世尊이……호오아 切利天에 가샤 歡喜國이라 흔 東山에 波利實多羅樹
라 흔 나무 아래 겨사(釋詳 11:1a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冠形構文이다. (1b)-1은 의미상으로는 사건시가 주절의 시제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

53) 자세한 논의는 Ⅺ장 참조.

나면 ‘평灭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화자가 일반적인 음식 만드는 소리로 생각하였다면 주절의 시제와 전혀 무관할 것이다. 이런 경우 중세어는 형태선택에 一貫性이 없어 ‘-는’도 취할 수 있었다.⁵⁴⁾ (1b)-2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화의 내용을 보면 주절의 시제와 거의 일치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月食호는’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음의 用例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1b)-2' 길을 소지 부딪기로 가는 지기 城門에 내두라 (釋詳 6:19a)

그러나 부정법을 취하는 일도 있어서 이 경우는 형태선택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b)-2'' “하나가 정을 어둔 지기 能흔 인 사보미 온호리라”(蒙法 36:7)

(1b)-3은 관형구문을 취한 동사가 引用動詞란 점과 지시성이 약한 구문상의 성격을 고려하면 ‘-근’이 불는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 중세어에는 이 경우 부정법, 직설법, 추측법을 수의로 선택하였다.

(2a)-1 “내 頤을 아니 從하면 고줄 몯 언드리라”(月釋 1:12b)

(2a)-2 “如來 오^ニ般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釋詳 13:34a)

(2a)-3 “내 이제 分明히 너두려 널오리라”(釋詳 19:4b)

(2a)-4 “이 世界를 어루 소망호야 해여 그 數를 알려 몯호려”(月釋 17:5a)

(2a)-5 “阿逸多아 그 선자헛 善男子 善女人의 隨喜功德을 내 널오리니 네 이 대 드로라”(釋詳 19:2a)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推測法의 叙述性構文이다. (2a)-1은 구이가 선혜에게 하는 말인데 발화시 이후의 주체의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2a)-2는 日月燈明佛이 대중을 향하여 하는 말로서 발화시 이후의 일을 確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4) 추측관형사형의 선택과 구문특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高永根(1981:85-6) 참조.

(2a)-3은 발화시 이후의 화자의 意圖를 陳述하는 것이다. (2a)-4는 청자에게 발화시에 있어서 가능성을 물고 있다. (2a)-5는 접속어미의 用例로서 화자의 의도가 파악된다. 접속어미 ‘-니’에 先行하는 추측법에도 설명법에서와 같은 비슷한 의미가 나타난다.

- (2b)-1 “호마 命終喜 사루물 善惡 물디 날오”(月釋 21:125b)
(2b)-2 “諸佛人 實法을 드르리 이시면”(法華 2:149b)
(2b)-3 “그 부엇 목수문 물 혈 쳐이라”(月釋 21:129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발화장면에 나타나는 관형구문이다. (2b)-1은 주절의 시제에 後行할 뿐이고 叙述性構文에서 볼 수 있었던 推測, 意圖와 같은 樣態的 의미는 잡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제성은 未來 관련의 시간부사 ‘호마’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2b)-2는 지시성이 매우 약하여 주절의 시제와 아무런 관련이 맺어지지 않는다. (2b)-3도 주절의 시제와 관련을 지울 수 없는데 이것도 크게는 지시성이 미약한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구문은 지문이든 대화이든 형태선택이 일정하지 않음을 더러 보아 왔다.

推測法의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시제도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상관성]의 장면의 叙述性 구문은 用例가 적어서 발화시나 이후의 일을 추측하는 이외의 다른 경향을 잡아낼 수 없지마는 관형구문은 부정법, 직설법과 같이 주절의 시제와의 관련성이 쉽게 맺어지지도 않고 형태선택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한편 [+상관성]의 발화장면에서는 叙述性構文은 단순한 미래사실의 예측 이외 가능성, 의도 등의 양태적 의미를 설정할 수 있으나 관형구문에서는 사건시가 주절의 시제에 後行하는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지시성이 회박하거나 缺如되었다고 믿어지는 구문은 주절의 시제와 관련을 맺기가 쉽지 않다.

이상 필자는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시제를 비교해 보았는데 근본

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부정법과 직설법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회상법도 대체로는 두 구문의 시제적 성격이同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측법도 叙述性構文에 나타나던 樣態性이 관형구문에서喪失된다는 점 이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상관성]의 장면에서 는 어떠한 구문이든 형태선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중세어의 특징이 될 수 있다.

IV. 두 構文의 관련 방법

——통사론적 接近——

이곳에서는 앞서 확인한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形態 및 意味上의相關性을 통사론적 관점에서 관련시켜 봄으로써 國語의 冠形構文이 어디서 由來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려고 한다.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을 통사론적으로 관련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第Ⅱ章에서 確立된 叙述性語尾들을 관형사형과 添辭로 분석하는 것과 관형사형을 서술성어미에서 유도해 내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방법은 일찌기 Ramstedt(1939:74)에서 제기된 것인데 叙述性語尾들을 관형사형과 첨사 ‘이라, 여, 이’로 분석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⁵⁵⁾ Ramstedt는 叙述性語尾를 설명법에 국한하며 관형사형 *n*과 *r*에 첨사 *ira*가 붙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설명법은 勿論의문법과 접속어미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差異點이라고 할 것이다. 앞의 叙述性語尾들을 관형사형과 첨사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left\{ \begin{array}{l} \text{혼(不定法)} \\ \text{호는(直說法)} \\ \text{호던(回想法)} \\ \text{호린○*호린(推測法)}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이라(說明法)} \\ \text{여(疑問法)} \\ \text{이(接續)} \end{array} \right\}$
-----	---	---	---

55) 서술성어미를 관형사형과 첨사로 분석하는 實例는 高永根(1981:27-8) 참조.

추측법의 ‘흐린’은 설명법어형의 ‘흐리니라’와 접속어형의 ‘흐리니’에서 분석된 것이고 ‘*흐린’은 의문법어형의 ‘*흐리녀’에서抽出된 것이다. 叙述性語尾에서 析出되는 推測冠形詞形 ‘흐린’과 ‘*흐린’은 그 出現條件이 相補的이라 할 수 있다. 서술성어미에서 析出되는 (1)의 左側의 語形을 冠形詞形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추측법을 除外하고는 일반적인 名詞類 앞에 나타나는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추측법도 ‘흐린’과 같은 형태가 비록 그 의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명사 앞에 쓰이는 일이 있었고 ‘*흐린’도 ‘흘’의 기저형태로 설정될 수 있는 구조상의 妥當性이 인정되는 이상⁵⁶⁾ 형태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라, 여, 이’도 위의 분석결과에 단 기대면 添辭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것은 관형사형과 첨사의 統合構成으로 기술되고 있는 중세어의 2人稱 疑問法 및 間接疑問法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⁵⁷⁾

$$(1') \left\{ \begin{array}{l} 흘(不定法) \\ 흘는(直說法) \\ 흘던(回想法) \\ 흘(推測法)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다 \\ 가 \end{array} \right\}$$

차이점이라고는 (1')의 추측법의 관형사형은 ‘흘’인데 대해 (1)의 그 것은 ‘흐린’과 ‘*흐린’이라는 점뿐이다. 그러나 이곳의 ‘흘’도 그 기저형이 ‘*흐린’인 이상 추측법에서도 형태가 같다고 할 수 있다.

(1)의 左側에 나타나는 형태가 일반적인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고 그 오른쪽에 나타나는 형태가 일반적인 첨사와 같다는 사실만 고려하면 叙述性語尾들을 관형사형과 첨사의 통합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중세어의 文法記述을 오히려 煩雜하게 하는 점이 더 많다.⁵⁸⁾ 우선 叙述性語尾 가운데서 설명법어미와 의문법어미는 尊卑法에 따라

56) ‘흐린’과 ‘*흐린’에 대한 논의는 제Ⅲ장과 高永根(1981:24) 참조.

57) 중세어의 의문첨사에 대하여는 安秉禧(1963), 허웅(1975:495-516), 李賢熙(1982) 참조.

5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高永根(1981:28-9)에서 자세히 논의한 일이 있다.

活用을 한다.

(2) a. 흐이라(흐나라)<呼拉體>, 흐이이다(흐나이다)<呼哨體>

b. 흐여(흐녀)<呼女體>, 흐이잇가(흐니잇가)<呼哨體>

대표적으로 부정법단 들었으나 설명법 (a)와 의문법 (b)는 韓卑法 標識 ‘이, 잇’을 가운데 두고 형태를 달리한다. 중세어의 첨사류를 본다든지⁵⁹⁾ Ramstedt(1939:165-7)의 말을 빌더라도 첨사는 不變語로서 活用을 하지 않는데 (2)의 a, b에서는 첨사로 식별된 ‘이라, 여’가 活用을 하니 첨사의 자격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접속어미에 나타나는 ‘이’도 설명법의 ‘이라’의 ‘이’와 같은 것이니⁶⁰⁾ ‘이라’가 첨사가 안 되면 ‘이’ 역시 첨사로 다루어질 수 없다. 叙述性語尾들은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과 첨사의 통합구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活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전체를 한 덩어리의 語尾部로 간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百步를 양보하여 우리의 叙述性語尾들을 관형사형에 첨사가 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關係構文이 이에 대응되는 叙述構文에서 유도된다는 普遍理論에도 어긋나니 文法記述을 더 어렵게 만들어 준다. 이와 함께 생각할 것은 추측관형구문을 이에 대응하는 叙述性構文에서 유도하면 樣態性的 상실이 쉽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 아래서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설명이 간편하나 반대의 경우, 곧 양태성이 더해지는 것은 설명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後述).

이런 몇 가지 難關을 고려할 때 冠形詞形으로 이끌어지는 構文은 필연적으로 叙述性語尾를 가진 構文과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第一章에서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時制의 意味가 대부분의 경우同一함을 確認한 바 있다. 이제 이 사실에 기대어 두 구문을 구체적으로 관련시켜 보고자 한다. 叙述性구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說明法 構

59) 첨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는 安秉禧(1965:65-7), 허옹(1973:369-70) 참조.

6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高永根(1981:28) 참조.

文이다.⁶¹⁾ 관형구문이 모두 叙述性構文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⁶²⁾ 그런 경우에도 說明法 構文과만 관련되는 것인지의 문제 등은 그리 쉽게決定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므로 이곳에서는 잠정적으로 설명법 구문에 局限하기로 한다.

不定冠形構文과 直說冠形構文은 이에 대응하는 不定說明法의 구문과 直說說明法의 구문으로 쉽게 전개될 수 있다. 먼저 不定冠形構文부터 검토해 본다.

(3)-1 阿育王 선 나래 鐵輪이 虛空으로서 누라오니(釋詳 24:13a)

(3)-2 獄은 罪 지은 사辱 가도는 쌔하니(月釋 1:28b)

(3)-3 夜叉는 늘나고 모니다 흔 뜨더니(月釋 1:14b)

위의 用例는 第Ⅲ章 A의 (1b)에서 가져온 부정관형구문으로서 모두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설명법의 구문으로 전개된다.

(3)-1' 阿育王이 어느 나래 서니라(그 나래 鐵輪이…)

(3)-2' 엇던 사辱미 罪를 지스니라(獄은 그 사辱물…)

(3)-3' (그 뜨들) 늘나고 모디다 후니라

관형구문이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 것인 이상 설명법구문도 일단은 그런 장면의 자질을 떠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3'의 ‘후니라’가 (3)-3에서 ‘흔’으로 된 것은 核心名詞 ‘흔’이 ‘…후니라’의 目的語가 되기 때문이다.⁶³⁾ 이렇게 전개된 설명법구문은 實在하는 부정설명법 用例와 같이 과거 사실을 단순하게 진술하거나 일반적 사실을 진술하는 의미를 표시한다. (3)-1'는 전자의 의미를, (3)-3'는 후자의 의미를 표

61) 최현배(1961:180)에서는 베풀풀, 곧 설명법이 관형사형보다 더 기초적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62) 권제일(1980:80)에는 관형화 내포문의 구조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 등의 어느 한 가지라고 확정되어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63) 이러한 종류의 구문에 대한 解釋은 허옹(1975:817)에 기대었다.

시하고 (3)-2'는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다(前述).

- (4)-1 “이에 듣 사르문 죽디비 나디 몬호느니라”(釋詳 24:14b)
- (4)-2 “이 如來 나신 짜하니이다”(釋詳 24:35b)
- (4)-3 “鹿母夫人의 나흔 고줄 어의 뿐린다”(釋詳 11:32b)

위의 用例는 第Ⅱ章 A의 (2b)의 문장에서 가져온 것인데 모두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법구문으로 전개된다.

- (4)-1' “이에 엊던 사르미 드나라(그 사르문….)”
- (4)-2' “如來 엊던 짜해 나시니이다(그 짜히 이 짜하니이다)”
- (4)-3' “鹿母夫人의 엊던 고줄 나흔이라(그 고줄….)”

[+상관성]의 관형구문도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설명법 구문은 위와 같이 [+상관성]의 장면자질을 띤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4)-3'의 ‘나흔이라’가 (4)-3에서 ‘나흔’으로 된 것은 핵심명사 ‘꽃’이先行動詞 ‘낳다’의 目的語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개된 설명법구문은 實在하는 설명법의 용례와 같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시제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 (5)-1 길 훌 초자 부텃거로 가는 저고 城門애 내두라…(釋詳 6:19a)
- (5)-2 獸는 거느 중심이라(月釋 21:113a)
- (5)-3 明行足은 불고 힘더기 그주실 씨라(釋詳 9:3a)

위의 用例는 第Ⅱ章 B의 (1b)에서 가져온 직설관형구문인데 [-상관성]의 장면자질을 띤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직설 설명법의 구문으로 전개될 수 있다.

- (5)-1' 어느 저고 길 훌 초자 부텃거로 가는니라(그저거….)
- (5)-2' 엊던 중심이 거느니라(그 중심이….)
- (5)-3' 엊던 힘더기 불고니라(그 힘더기….)

관형구문이 [-상관성]의 자질을 띤 이상 그에 대응하는 설명법 구문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전개된 설명법 구문은 實在하는 설명법의 用例와 같이 과거사실을 설화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일반적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5)-1'는 전자의 의미를, (5)-2', 3'는 후자의 의미를 표시한다.

- (6)-1 “이 바리엣 물에 둘 내 듣니는 짜해 아라라”(釋詳 24:9b)
- (6)-2 “이런 도호 緣으로……”(月釋 21:126b)
- (6)-3 “다 如來入 威力이론 고들 아라라”(釋詳 9:28b)

위의 用例는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직설법의 관형구문이다. 이 구문도 다음과 같은 [+상관성]의 자질을 띤 설명법의 구문으로 전개된다.

- (6)-1' “…내 엊던 짜해 듣니느니라(그 짜해…)”
- (6)-2' “이런 緣이 도호니라(그 緣으로…)”
- (6)-3' “엊던 거시 다 如來入 威力이니라(그 고들…)”

관형구문 (6)-3이 ‘론’이 된 것은 ‘곧’의 통사자질에 그 원인이 있다.⁶⁴⁾ 이렇게 전개된 구문은 實在하는 [+상관성]의 설명법 用例와 같이 대체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일치하는 현재시제를 표시한다.

不定法과 直說法의 冠形構文은, [-상관성]의 구문은 이에 대응되는 [-상관성]의 설명법구문으로, [+상관성]의 구문은 이에 대응하는 [+상관성]의 구문으로 각각 전개되며 시제적인 의미도 실재하는 설명법의 用法과 일치하는 것임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回想冠形構文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 (7)-1 이는 善薩 행호던 衆生 을 니르시니라(釋詳 13:51a)

64) (6)-3의 ‘곧’은 엄격히 말하면 ‘줄’의 뜻이나 이에 해당하는 自立名詞가 없어 편의상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명사들은 관계절을 이끄는 말이 아님이 보고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허옹(1975:833, 848-56) 참조.

(7)-2 그 東山에 일 가짓 祥瑞 나며 踵_도 東山이 어위며(月釋 2:28b)

위의 것은 第Ⅱ章 C의 (1b)의 문장으로서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回想冠形構文이다. 이들은 앞의 부정법, 직설법과 같이, 대용하는 [~상관성]의 설명법구문으로 전개된다.⁶⁵⁾

(7)-1' 엊던 衆生이 善惡是 行_호더니라(그 衆生是…)

(7)-2' 엊던 東山이 즐더니라 (그 東山이…)

이렇게 전개된 설명법의 構文은 實在하는 [~상관성]의 설명법의 用例와 같이 화자의 직접적인 體驗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의 일을 단순하게 설화하는 의미만 포착된다.

(8)-1 “내 호던 이리 執히 와다소하다”(釋詳 24:18a)

(8)-2 당다_하 구술 날_로 시내_하 모른치리라(杜謹 19:16a)

위의 用例는 第Ⅱ章 C의 (2b)의 用例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回想冠形構文이다. 이들도 일단은 대용하는 [+상관성]의 설명법구문으로 전개할 수 있다.

(8)-1' “내 엊던 이를 호다니라(그 이리…)”

(8)-2' “(太公望) 엊던 시내해서 구술 낙여니라”

(8)-1'가 ‘호다니라’로 전개된 것은 主體가 第1人稱일 때는 回想法의 ‘-더-’가 ‘-나-’로 교체하기 때문이다. 현대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체가 第1人稱일 때는 ‘-더-’가 쓰이지 못하는데 중세어에서는 이런 制約을 받지 않으므로 (8)-1을 (8)-1'와 같이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後者는 前者에 對應되는 설명법 구문으로 볼 수 있다. (8)-2'는 杜甫가 태공망이 구술을 낚는 일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더니라’의 用例와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65) 이 두 문장은 이미 高永根(1981:79-80)에서 논의한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중세어에서 [+상관성]의 장면에서 ‘-더니라’가 쓰이는 일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第Ⅱ章의 (7)-2와 第Ⅲ章 C의 (2a)-1이 그러한 用例인데 이들은 月印千江之曲의 작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성]의 장면에서 ‘-더니라’가 쓰인 것이다. 현대어의 다음과 같은 用例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8)-2'' “우리는 이순신장군께서 왜적을 무찌르던 노량해협을 지나갔습니다”

이는 “…노량해협에서 왜군을 무찌르더니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인데 화자의 직접적인 體驗과는 無關한, 과거사실에 대한 단순한 陳述에 지나지 않는다.⁶⁶⁾

중세어의 推測冠形詞形은 指示性이 약한 구문에 쓰이는 일이 많아 그 것을 이에 대응하는 설명법 구문으로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다.

(9)-1 그 鬼神들이 月食害 저괴…(釋詳 24:25a)

(9)-2 歡喜國이라 흘 東山애…(釋詳 11:1a)

(9)-1은 ‘月食호는, 月食흔’으로, (9)-2는 ‘…호는, 흔’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호리니라’ 등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호느니라, 흔니라’가 더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用例는 이에 상응하는 설명법 구문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10) “호마 命終害 사르물 善惡 물디 말오…”(月釋 21:125b)

(10') “엇던 사르미 호마 命終호리니라(그 사르물…)”

(10)(10')를 비교해 보면 관형구문에서는 사건시가 말화시에 後行하는 未來時制의 의미만 파악되는 데 대하여 (10')에서는 推測 등의 양태적 의미가 결파음을 확인할 수 있다(前述).

66) 서정수(1979:164-5)에는 현대어를 중심으로 관형사형의 ‘-던’의 ‘더’가 몸소 살피의 제약을 안 받는 사실을 지적하고 심층 서술어의 다양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나 再考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論述에 기대면 冠形構文은 推測法을 除外하고는 대부분 이에 상응하는 설명법의 叙述構文으로 展開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세어에 국한하는 限 冠形構文은 說明法 등의 叙述性構文이 그 源泉임을 말할 수 있다.

설명법구문을 기반으로 하여 관형구문을 유도한다고 할 때 그 절차는 어떠해야 할까? 標準生成理論에 立脚한 현대어의 變形規則을 應用해 보기로 한다.⁶⁷⁾ 설명법구문의 ھ라體만 대상으로 하면 '이라'가 침사의 자격이 충분하므로(前述) 添辭脫落 規則을 적용하여 관형구문이 되도록 操作하는 것이다. 叙述性語尾가 명사 앞에 놓이면 침사가 필수적으로 탈락된다는 制約을 가하는 규칙의 설정이 중요하다.

(11) 添辭脫落規則

구조기술 : X - [는 던 린] -	이라 - N - X
1 2 3 4 5	φ 4 5

구조변화 : 1 2 3 4 5

現代語에서는 同一名詞句가 脱落되면 時制冠形化規則이 뒤따라 적용되어야 하는데⁶⁸⁾ 중세어는 대신 침사가 탈락되는 것이다. 침사탈락의 과정에서 추측법의 경우는 樣態性의 상실도 동시에 언급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아래 부정법의 문장을 例로 들어 중세어의 關係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2) 주근 아비 사라 오너라

이 문장의 深層構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67) 표준생성문법에 의한 國語變形規則은 남기심외(1979:77-141) 참조.

68) 남기심외(1979:104)에 기대면 '는, 었, 겠'이 명사 앞에서는 '는, 은/-, 을/-'로 變形된다고 설명하고 있다(後述).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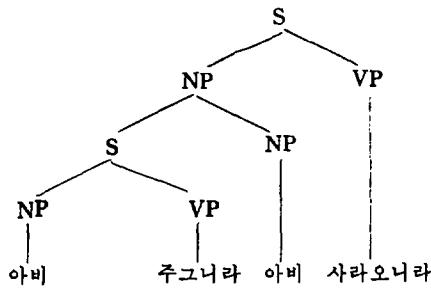


그림 (12')에서 (12)를 유도하려면 먼저 관계절 안의 명사구를 탈락시켜야 하는데⁶⁹⁾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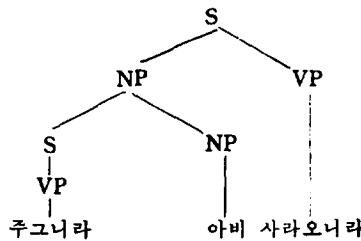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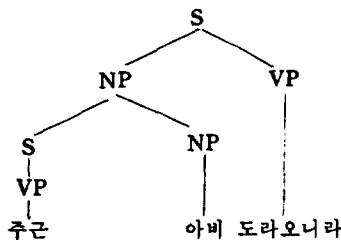


그림 (12'')에, 앞서 말한 첨사탈락규칙 (11)을 적용하면 그림 (12''')와 같은 표면구조의 문장 (12)가 도출된다.

(12''')



V.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變遷樣相

이곳에서는 지금까지의 論述에 기대어 현대어에서 叙述性構文과 冠形

69) 국어의 관계절의 同一名詞句의 脱落에 대하여는 남기 심의 (1979:108) 참조.

構文이 틈이 생기게 된 緣由를 캐어 보려고 한다. 미리 말한다면 叙述性語尾는 극심한 변화를 입었음에 대해 冠形詞形은 중세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현대어에는 중세어에 存在했던 둘째 설명법 어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 根本的 變化인 것이다. 第Ⅱ章의 (11)의 圖表를 보면 중세어에 있었던 不定疑問法(흔녀), 不定接續語尾(흔니), 直說接續語尾(흔느니), 推測接續語尾(흔리니)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관형구문과 직접 연결시킨 것은 설명법이므로 설명법 어미에 국한하려고 한다.

우리는 第Ⅱ章에서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原則法과 둘째 설명법이 형태가 같아서 기능의 負擔量이 매우 크며 변화의 요인을 배태하고 있음을 주목한 바 있다. 이리하여 회상법의 둘째 설명법 '-더니라'는 '니'가 缺落되어 '-더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은 직설법의 둘째 설명법 '-느니라'와 추측법의 둘째 설명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직설법의 첫째 설명법은 둘째 설명법의 '-느니라'에서 '니'가 缺落되어 形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추측법의 첫째 설명법도 둘째 설명법의 '-리니라'에서 '니'가 떨어짐으로 결과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Ⅱ章 圖表 (10)의 [+상관성]의 장면에서 直說法과 回想法의 둘째 설명법의 자리가 "약세"(△)로 표시된 것은 15세기 당시에 '니'의 缺落이 상당한 정도로 수행되었다는 通時의 사실을 반영한다. 추측법의 둘째 설명법의 자리가 "안쓰임"(×)으로 표시된 것은 이미 15세기 이전의 段階에 '니'의 缺落이 完成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부정법은 첫째 설명법보다 둘째 설명법이 더 우세하다. 이는 부정법의 경우 '니'의 缺落現象이 다른 叙法보다 늦게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관성]의 장면은 '니'의 缺落이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거나 상당히 진행되었음에 대하여 [-상관성]의 장면은 '니'의 缺落이 비교적 덜 현저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15세기 이후의

70) 近代 이후의 자료는 張京姬 교수와 李賢熙·柳東碩兩君의 협조가 컸다.

文獻을 중심으로 두 장면에 나타나는 설명법어의 변화 모습을 알아보기로 한다.⁷⁰⁾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不定法은 형용사와 지정사의 경우는 간혹 보이나(後述) 動詞에 직접 붙는 경우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⁷¹⁾ 「清州北一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1569?)에 동사에 바로 붙는 ‘-니라’의 用例가 얼마간 눈에 띄지 않는 바 아니나 서간문을 [上상관성]의 어느 장면으로 처리해야 할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受信者가 一定해 있다는 점에서는 [+상관성]의 장면의 성격이 없지 않으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상관성]의 성격도 인정된다.

- (1) 아바님도 이제 본여그로 가니라(「清州簡札」, 忠北大 박물관 발행, 1981, p. 204)

그러나 직설법은 더러 발견된다. 「癸丑日記」(17세기初)와 「先朝行狀」(17세기중엽), 「捷解蒙語」(1737)의 다음 用例는 둘째설명법일이 틀림 없어 보인다.

- (2) “다 을흐니이다”(姜漢永校註本「癸丑日記」, 1958, p. 142)
 (3) “총소윗 말이 더욱 심흐니이다”(「先朝行狀」, 「애산학보」(영인), 1981, p. 41)
 (4) “흐루 반드시 훈번 오느니라”(「첩해몽어」2:1a)

위의 用例는 모두 물음에 대한 답변, 곧 兩方的 發話行爲에서 나타나므로 原則法 아닌 둘째설명법으로 간주된다. (2)(3)은 형용사, (4)는 동사에 붙는 것이다. 첨해몽어는 改刊本이기 때문에 18세기의 자료로 보기 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例文은 「太平廣記諺解」(17세기

71) 허웅(1979:14)에는 17세기 자료에서 [+상관성]의 장면에 쓰이는 동사 부정법의 用例를 들고 있으나 借憑性이 회박하다. 老乞大(重刊)의 用例 ‘주그니라’(上: 26)는 初刊本의 것과 같으며 첨해신어에 나타난다고 하는 ‘너기옵닝이다(2:5), 브라닝이다(6:5)’의 用例는 ‘너기옵닝이다, 브라닝이다’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자료)에도 보인다.⁷²⁾ 回想法은 「清州簡札」, 「癸丑日記」, 「太平廣記謄解」와 18세기 자료인 「捷解蒙語」등에서 散見된다.

- (5) “당웃 ㅋ수미 더 서더니라”(「청주간찰」p. 15)
- (6) “내…거짓말 흐엿더니라”(「계축일기」p. 185)
- (7) “글로 흐야 날을 쭈짓더니라”(「태평광기언해」p. 16)
- (8) “우리 다 자더니라”(「첩해동어」4:10a)

(6)(7)은 발화상황이 一方的이어서 原則法의 의미가 파악될 수도 있고 (8)은 ‘되답지 아니호던다’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란 점에서 둘째 설명법의 기능이 거의 틀림없다.

이상의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꽤 우세하였던 부정법이 近代國語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15세기에 열세였던 직설법은 그런 대로 쓰였고 회상법은 原則法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지 않았으나 역시 확인되었다. 동사의 부정법 형태가 자취를 감추다시피 된 것은近代에 들어와서 完了相의 ‘잇／엇’이 과거시제로 기능전환을 하게 된 데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한다. 부정법 ‘-니라’의 과거시제의 用法을 ‘-았／-었다’와 같은 형태가 짊어진 것으로 해석해 본다.⁷³⁾ 직설법은 동사의 경우도 ‘니’의缺落을 거쳐 ‘-ㄴ/는다’로 바뀌고 회상법은 ‘-더라’로 대체되기도 하며 단순한 과거 사실의 진술일 때는 ‘잇다’로 바뀌는 것이다.

[+상관성]의 장면에 비해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중세어와 큰 변동이 없다. 動詞의 不定法은 16세기의 「번역소학」(1518), 「소학언해」(1588)을 비롯하여 17세기의 「계축일기」, 「山城日記」, 18세기의 「三譯總解」, 18-9세기의 「恨中錄」, 「閨閣叢書」를 거쳐 20세기초의 開化期 문

72) 다음 用例 참조.

“그더……당갈원을 흐엿던다”……대월 “울호니라”……“종이 잇는냐” 님월
“다 잇는니라”(金一根校說(영인), 1957, p. 45).

73) [+상관성]의 부정법 ‘-니라’와 ‘-았/었다’의 交替時期는 앞으로 면밀하게 추구될 필요가 있다.

장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를 歷代의 文獻에서도 15세기와 같이 첫째설명법이 함께 나타난다.

- (9) 그 문의 정표^를하고…그 집 구실을 덜라 하시니라(「번역소학」9:66-7) cf. 詔旌表 其門閭^{하시고}…하시다(同 9:66a)
- (10) 이 우호 아비와 아들의 친هم을 불키니라(「소학언해」2:36a) cf. 孔子 | 그兄의 조식으로 안해 삼으시다(同 4:42b)
- (11) 심복^의 의원을 보내여 티독^{하야} 죽이니라(「계축일기」 p. 27)
- (12) 민한 등을 내어 보내니라(「산성일기」, 문화재관리국영인 四面) cf. 노라 치란 오랑캐로 농호^{장군}을 힘이다(上同)
- (13) 呂布 | 성내어 크게 벼르고 집의 물리 가니라(「삼역총해」1:10b) cf. 呂布 | 사례^{하고} 가다(同 1:4b)
- (14) 걸너서 삼간 미처 나온 의복을 넘으니라(「한중록」, 「한국고전문학대계」, 민중서관, 1961, p. 28)
- (15) …식어미를 봉양^{하니라}(「규합총서」, 鄭良婉譯註, 寶珍齋, 1975, p. 203) cf. …식어미를 공경^{하다}

오른쪽의 형태(cf.부분)는 같은 文獻에 두 가지 부정법이 共存함을 특별히 드러내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다.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부정법 '-니라'는 1910年까지의 개화기의 교과서 문장에까지 널리 쓰였고⁷⁴⁾ 그 이후의 교과서나 논설문 등의 문장에도 잦아 쓰여 왔으며 소설 문장은 신소설에서부터 이런 투의 말이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⁷⁵⁾ [-상관성]의 동사 부정법도 [+상관성]과 같이 '었다'에 의해 替換되었다.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직설법 '-느니라(-니라)'도 15세기와 같이 歷代의 자료에 고루 분포되었으며 개화기의 교과서 문장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문제는 七書諺解 등 教化書類에 나타나는 직설법을 둘째 설명법으로 볼 것인지 原則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확연한 기준을 세

74) 이 문제에 대하여는 康允浩(1969, 1973) 참조.

75) 安秉禮(1968)에 의하면 국어문장 구조의 현대화는 1920年代 초기에 形成되었음이 지적되어 있다.

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6) 王蠋이 葵오덕…烈女는 두 남친 을 고тер 아니호누니라(「소학언해」2:44b)

(17) 어려운 이리 닐곱가지니…닐곱재 葵온 가난호미니라(「呂氏 鄉樂諺解」34b-35b)

(16)은 王蠋의 말을 引用했다는 점에서, (17)은 이어지는 벡스트의 끝이 命令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표명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정상적인 대화에 나타나는 원칙법만큼 화자의 의도 표시가 강하지 않다. 이런 점으로 보면 [一상관성]의 성격도 없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글이나 일반 지문에 나타나는 직설법⁷⁶⁾은, 動詞는 현대문장에서는 ‘-는／ㄴ다’, 形容詞, 指定詞에서는 ‘-다’로 바뀌었다.

[一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回想法의 用例도 16세기부터 개화기의 문장⁷⁷⁾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널리 퍼져 있었다.

(18) 그저거…후마 待制 썩슬호야… 드외었던니라(「번역소학」9:6b)

(19) 烈女傳에 구로덕…바미어든…正훈 이를 이부더니라(「소학언해」1:2b)

(20) 웅벽이의 대군 부모 상궁 족해러니라(「계축일기」p. 185)

(21) 사오나온 일 둘더니라(「先朝行狀」p. 11)

(22) 선비 미양 우서 갈오소티 “이 아하 그터 쓸오미 심흐다” 흐시더니라(「한종록」p. 10)

(19)는 “列女傳에…”로 시작되어 있어서 原則法의 一面이 없는 바 아니나 나머지는 지문의 用例이다. 특히 (18)은 口訣文이 “時에 長公이 已爲……려라”로 되어 있어 ‘-더니라’와 ‘-더라’의 가치의 同質性이 보증되기도 한다. [一상관성]의 回想法인 ‘-더니라’는 앞의 동사 부정법과 같이 ‘었다’로 바뀐다.

76) 개화기의 고파서의 文章에 나타나는 直說法의 用例는 康允浩(1973:294-384) 참조.

77) 개화기의 고파서 문장에 쓰인 回想法의 用例는 하나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康允浩 1973:308).

[−상관성]의 장면에 나타나는 추측법의 用例는 15세기 자료에서도 드물었는데 近代에서도 마찬가지다. 추측법의 ‘-리니라’는 15세기에 이미 ‘니’가 缺落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리라’를 거쳐 현대문장에서는 ‘-ㄹ 것이다’ 내지 ‘-겠다’로 바뀌었다.

[+상관성]에 나타나는 부정법은 이미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쓰인 자취를 찾기가 어려우며 직설법, 회상법은 대체로 17세기까지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用例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1910年代까지 쓰이다가 20年代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어떤 장면의 것이든 동‘사’의 不定法은 ‘었다’로, 直說法은 ‘-ㄴ／는다’로 바뀌었다. 回想法은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더라’로 바뀐 것도 없지 않으나 ‘-었다, -더라’로 대치되었으며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하나같이 ‘었다’로 置換되고 말았다.

이상의 論述에 기대어 볼 때 현대어에서 叙述性構文과 冠形構文의 형태가 다르고 의미 또한 1:1의 대응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설명법 구문이 겪은 형태상의 변화는 勿論이고 統辭上의 변화까지 입은 데 그 원인이 있다. 回想法의 경우는 통사상의 變化까지도 目擊되는 것이다.⁷⁸⁾ 현대어의 生成文法研究에서는 시제관형화의 규칙을 세울 때에 ‘는, 었, 겠’이 관형사형 ‘는, 은／ㄴ, 을／ㄹ’로 바뀌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⁹⁾ 설명법의 ‘는’을 관형사형의 ‘는’과 직접 연결시킨 것은 현대어 자체만 고려하면 온당한 처리가 아니다. 설명법은 ‘는’뿐 아니라 母音語幹 아래에서는 ‘ㄴ’으로도 실현되며 ‘었, 겠’과는 序列이 같아서 共存할 수 없는 등 구조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설명법의 ‘-는／ㄴ다’는 중세의 ‘-느니라’ 내지 ‘-느다’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관형사형 ‘-는’과 같은 뿌리에 이어진다. ‘-었(다)’도 부정법의 ‘-니라’를 대치한 형태이며 ‘-겠(다)’도 궁극적으로는 ‘-을/ㄹ’과

78) 중세어의 회상법의 통사특성에 대하여는 高永根(1981:75-7) 참조.

79) 이 규칙은 補完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남기심의(1979:104) 참조.

같은 根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대어의 시제관형화 규칙도 설명법 구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通時態를 고려한 間接的 對應關係가 성립될 수 있다.⁸⁰⁾

VI. 槐　　稿

현대어의 冠形詞形 ‘-ㄴ, -ㄹ’의 뿌리를 캐어 보겠다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세어의 설명법어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 바탕 위에서 서술성구문과 관형구문의 形態 및 意味上의 相關性을 찾고 두 구문의 관련 방법을 探索해 보았다. 그리고 현대어에서 두 구문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중세 이후의 文獻을 통하여 따져 보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세어에는 ‘-다(라)’로 끝나는 보편적 설명법어미 이외 ‘-니라’로 끝나는 또 한 갈래의 설명법어미가 確認된다. 이들은 [−상관성]의 장면뿐 아니라 [+상관성]의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추축의 문법과 추축 관형사형어미도 그 패러다임과 中世語의 活用形態를 깊이 살펴보면 그 基底形態가 ‘*-리녀’와 ‘*-린’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說明法, 疑問法, 그리고 接續語尾를 서로 比較해 보면 모든 叙述性語尾는 ‘니’로 시작하거나 ‘니’로 끝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들과 冠形詞形語尾는 ‘ㄴ’이란 요소가 공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 사이에는 위에서 말한 形態上의 共通性에 併行하여 意味上의 共通성이 인식된다. 不定法에서는 事件時가 發話時 내지 主節의 사건시에 앞서는 과거시제를, 直說法에서는 事件時와 發話時가 일치하는 현재시제를, 推測法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뒤서

80) 현대어의 두 구문의 간접적 대용 관계를 文法記述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뒤날로 미룬다.

는 未來時制를 각각 표시한다. 回想法은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대부분 화자의 경험과 관련한 時制解釋이 가능하지마는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직설법이 발화시를 중심으로 한 사건의 叙述에 쓰인다고 한다면 回想法은 經驗時를 중심으로 한 사건의 서술이나 발화시 이전의 과거의 일을 叙述할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⁸¹⁾ 推測法에서는 叙述性構文에 結付되어 있던 様態性이 관형구문에서 衰失된다. [-상관성]의 장면과 指示性이 약한 構文에서는 시제성이 회박하여 다른 형태가 대치되는 현상도 목격된다.

3. 冠形構文을 이에 대응하는 叙述性構文, 특히 說明法構文으로부터 유도하는 것이 關係化의 보편이론에도 맞고 국어의 形態構造나 意味問題를 훨씬 合理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冠形構文은 그에 대응하는 설명법구문으로 展開할 수 있는데 이는 중세어의 冠形構文의 源泉이 설명법 등의 叙述構文임을 意味한다. 관형구문을 설명법구문에서 유도하는 절차로서 특별한 것은 添辭脫落規則이다. 이 규칙의 적용에 의해 관계화가 形成되는 것은 두 구문 사이에 형태상의 公通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4. 현대어에서 서술성구문(설명법구문)과 관형구문의 시제형태가 어긋나는 것은 前者가 15세기 이후 激甚한 變化를 겪은 데 연유한다.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近代文章에까지 유지되었으나 [+상관성]의 장면에서는 17세기 이후에는 쓰인例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였지만 論議가 충분치 못한 데가 많다. 특히 직설법과 회상법의 둘째 설명법어미와 원치법의 변별과정에서는 아직도 補充해야 할 部分이 많다. 국어의 冠形詞形語尾는 반드시 關係化의 標識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하

81) 최근 終結法에 나타나는 '-더-'가 화자의 意圖와는 상관없는 無意圖의인 사실을 發話現場 밖에서 비로소 인지하여 그것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모든 '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설정이 요망된다. 柳東碩(1981) 참조.

지 못했다. 그리고 관계 구문을 실명법구문으로 친개하는 데 있어서도 엄밀한 분석방법론 위에 서지 못하였다. 冠形構文은 是變化를 겪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형태에 국한할 때 그러하지 실제로는 사정이 다르다. 현대어의 관형구문은 중세어에는 생산적이었던 完了相 '어 있다'가 그 계속형인 '-었-'과 統合될 때는 제약을 많이 받기도 하며 先語末語尾 '-겠-'과 자연스럽게 統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중세어와 다른 점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어의 용언 形態部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하고 幅을 넓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康允浩(1969), 開化期의 教科用 圖書文章에 나타난 終止法 語尾에 對하여, 論叢 14(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 _____(1973), 開化期의 教科用 圖書, 教育出版社.
- 高永根(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應用言語學 7-1.
- _____(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 권재일(1980), 現代국어의 관형화 내포문 연구, 한글 167.
- 金完鎮(1957), -n, -l 動名詞의 統解論의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國語研究 2.
- _____(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出版部.
- 南基心(1976), 關係冠形節의 相對 法, 韓國語文論叢, 南基心(1978)再錄.
- _____(1978),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試論, 塔出版社.
-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1979), 韓어 학개론(개정판), 탑출판사.
- 서정수(1979), 〔였던〕에 관하여, 余泉徐炳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螢雪出版社.
-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建國大學校).

敘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 [5 3]

- _____ (1968), 國語의 文章構造의 現代化에 對한 研究, 文教部學術研究報告書.
- Yang, I.S.(양인석) (1972), Korean Syntax, 백합출판사.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博文出版社.
- _____ (1947),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 柳東碩(1981), ‘더’의 意味에 대한 管見, 冠獄語文研究 6.
- 이기갑(1982), 전 남북부방언의 상대높임법, 언어학 5.
- 李基文(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 李男德(1982), 濟州方言의 動詞終結語尾 变화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대하여, 論叢 40(梨大 韓國文化研究院).
- 李崇寧(1957), 濟州道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 李弼永(1981), 國語의 關係冠形節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8.
- 李賢熙(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國語研究 52.
-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塔出版社.
- 崔鶴根(1979),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응(1965), 國語音韻學, 正音社.
- _____ (1969), 옛말본, 과학사.
- _____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玄平孝(1974), 濟州道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 河野六郎(1951), 中期朝鮮語の 時稱體系に就いて, 東洋學報 34卷 1-4號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Hockett, Ch.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McCawley, J.D. (1976), *Relativiz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5*
ed. by M. Shibatani, Academic Press.
- Quirk, R. et al. (1972),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Seminar Press.
-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ABSTRACT〉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Predicative Endings and Relative Participle Endings

Yong-Kun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1. In recent years many grammarians have been studying the relative constructions in present-day Korean,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generative-transformational grammar; however, they have not been interested in the problem of where the markers of relative clauses come from. While the tense forms of the relative clauses in most languages correspond to those of predicative forms, at least from the morphological viewpoint, the tense forms of the relative clauses in present-day Korean are in many respects different from the predicative tense forms. Identifying a special kind of declarative endings neglected so far and systematizing the paradigms of predicative endings, we can discover the common elements between relative participle endings and predicative endings; furthermore, we can find the syntactic relation between the

two constructions.

2. There are other kinds of declarative endings with *nira*, side by side with the general form with *ta*. The *nira*-endings are used in two-sided communications as well as in one-sided communications. We can reconstruct *rijn* and *rijnja* as the respective underlying forms of presumptive participle ending *r* and presumptive interrogative ending *rijə* by observing the paradigms of the verbal mood system in Middle Korean. Comparing the two underlying forms with the rest of predicative endings and participle endings, we find that the predicative endings in Middle Korean have the common element *ni*, which resembles partially the participle ending *n*.

3. From the morphological similarity between predicative endings and participle endings the common semantic distinctiveness may be derived. The tense which the two constructions represent is identical with each other: aorist form of action verb represents past tense, indicative form of action verb, descriptive verb, and copula present tense, respectively. The retrospective form represents past event as well as speaker's experience. However, the tense is not clearly represented in the one-sided communications and in non-deictic constructions; in these cases the tense elements can be replaced by each other without causing any change of meaning.

4. The fact that the predicative constructions and the participle constructions share the common morphological element and the same tense shows that the two constructions are related to each other syntactically. If the participial constructions are transformed into declarative constru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ormed constructions are identical morphologically and semantically with the actual declarative

constructions. This indicates that participial constructions can be derived from declarative constructions by the rule of relativization. One of the rules which participate in transforming declarative constructions into participial constructions is the rule of particle deletion, which is not postulated in present-day Korean. Since the declarative ending *nira* can be analyzed into participle ending *n* plus particle *ira*, we can obtain participial constructions by simply deleting the sequence *ira*, which is not commonly shared.

5. The discrepancy between participial constructions and declarative constructions in present-day Korean is due to the radical change in the system of predicative endings over 500 years. The general endings with *ta* was formed by the disappearance of *ni* in *nira* endings. The disappearance is observed in Middle Korean and the residual forms of *nira* are still found in the 17th century. However, in one-sided communications the *nira*-endings had been used until the Enlightening Period of the early 20th century.